

## 김대옥(29회) 제38대 총동창회장 취임, '기본'을 말하다

### “호시우보 자세로 나아가며 동문들 마음 얻도록 노력”

**비대면 비상 임시이사회서 96.67% 찬성으로 회장 선임  
박종찬 고문 “동창회 일 힘닿는데까지 이바지할 생각”**

사무총장에 현응열(29회) 동문

“지금처럼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동창회의 기본은 모교사랑이다.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고 화합의 정신으로 좋은 마음을 가진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지난 1월 29일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김대옥(29회) 제38대 총동창회장의 인사말이다. 기본을 말하고, 모교사랑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경남중고 총동창회가 처한 자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안을 말한 것이다.

김 신임 총동창회장은 이틀 전(1월 27일) 열린 비상 임시이사회에서 비대면 전자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총회 인준은 생략됐다.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방법으로 경남중고 총동창회장에 선임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3일 열린 비대면 제58차 정기 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차기회장 후보인 박성철(29회) 1수석부회장을 불신임하는 투표 결과가 나왔다. 이는 동창회 역사상 초유의 일로서 동문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같은 난감한 소용돌이 속에서 '2수석부회장에

대한 신임투표'라는 신속한 대응책이 펼쳐졌다. 분란과 혼란을 일소하고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동문들의 의사를 반영한 이사회 96.67% 찬성으로 신임을 얻은 총동창회장으로선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게 적시의, 최선의 해법이 었다.

김 총동창회장은 “난처하고 미묘한 입장이라 나름대로 고심이 많았다. 총동창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마음을 굳히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일부 동문들의 오해와 이견은 시간이 지나고, 열

심히 하여 총동창회가 잘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나아가며 동문들의 마음을 얻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 임시이사회에서 이임식을 가진 박종찬(25회) 전임 총동창회장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 “총동창회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 차차기회장을 지명해 둔 게 천운이었다”고 말하고 “김대옥 신임 총동창회장은 용마바둑회와 용마골프회 회장으로 정(靜)과 동(動)을 겸비한 동문이다. 옆에서 사명감을 갖고 돕겠다. 그동안 선후배님들의 많은 성원에 감사드린다. 이제 동문으로서, 고문

으로서 동문회에 이바지할 일이 있다면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신임 사무총장에 현응열(29회·사진) 동문이 임명됐다. 비상시국임을 감안 이사회 동의는 추후 받는 것으로 했다. 현 동문은 김 신임 총동창회장과 ‘절친’

의 동기생으로 동기회 ‘마당발’로 알려져 있다.

이날 친구회장 이·취임식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20여명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 단출하게 치러졌다. 행사 후 회관 1층 우미옥 식당에서 간소한 뒤풀이가 열렸다. 비상시국의 미니축제가 되었다.



총동창회 친구회장 이·취임식에서 박종찬(25회) 전임회장이 총동창회기를 김대옥(29회) 신임회장에 넘겨주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 총동창회장 선출 초유의 불신임 소동

**박성철 1수석, 전임회장과 충돌...이사회 투표서 부결  
“이사회 원천무효” 주장 속 제38대 집행부 들어서**

박종찬(25회) 전임 총동창회장의 집행부에서 차기회장으로 지명됐던 박성철(29회) 1수석부회장이 지난 1월 23일 치러진 2021년 비대면 제58차 정기 이사회 및 총회에서 불신임 투표 결과를 얻었다. 투표 결과 내용은 찬성 13, 반대 71이었다.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 동문사회에 큰 충격과 혼란을 야기했다.

지난해 말 크리스마스 무렵부터 한 달간 총동창회장 선출을 둘러싼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시발은 후임 사무총장 선임과 관련한 박 전임 총동창회장과 박 1수석부회장 간의 갈등이었다. 이후 회칙상의 총동창회장 자격 및 임기 개시일 적법성 시비, 정기 이사회 및 총회의 적법성 여부 논란, 급기야 내용증명마저 발송되는 사태로

비화됐고, 결국 비대면 정기 이사회에서 신임투표까지 치러졌다. 동창회 역사상 상상도 못해본 일들이 진행됐다.

박 1수석부회장은 지난 1월 3일 밴드글을 통해 박 전임 총동창회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총동창회의 개혁을 천명했다. 이를 두고 박 전임 총동창회장은 “전임회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적폐 대상으로 본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정기 이사회 투표결과 박 전임 총동

창회장의 손이 올라갔다. 하지만 박 1수석부회장은 정기 이사회 개최 전날 이사회 결과는 무자격자의 소집 행위로 원천무효라고 내용증명을 통해 주장했다. 추후 어떤 대응이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비상 임시이사회를 통해 선출된 김대옥(29회) 신임 총동창회장은 집행부 구성을 서두르는 등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면서, 박 1수석부회장의 추후 대응을 초연히 지켜보고 있다.

이번 총동창회장 선출 소동과 관련, ▲소동 심층 진단(5면 게재) ▲소동의 전말(6면 게재) ▲논란의 회칙 분석(6면 게재) 기사를 지면에 실는다.



##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 ‘좋은 마음가짐의 좋은 기’ 흐르는 총동창회 기대

##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상보

비상시국의 비상한 행사  
20분 만에 완벽한 진행

지난 1월 29일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37대·제38대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은 행사 개최 선언에서 종료까지 20분이 걸렸다. 비상시국에 걸맞은 비상한 행사였다.

동창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총동창회장 후보 불신임 투표를 치르고, 새 후보를 전자투표로 표결하여 총동창회장으로 선출한 대소동을 겪었다. 20여명의 동문이 자리를 함께했다. 여느 이·취임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단출한 모습이었다.

이날 행사는 박종찬(25회) 제37대 총동창회장 이임사, 김대옥(29회) 제38대 총동창회장 취임사, 현응열(29회) 신임 사무총장 인사, 참석 원로 동문 소개, 사무국직원 꽃다발 증정, 교가제창,



김대옥 신임 총동창회장이 총동창회기를 흔들고 있다.



총동창회 친구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동문들이 마스크를 낀 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동창회장기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박 전임 총동창회장은 이날 평소와 달리 간결한 이임사를 전했다. 이번 총동창회장 선출 소동에 대한 입장, 김대옥 차기회장에 대한 소개, 이번 소동에 대한 전망등을 풀어나갔다. ‘잘 되리라’는 일관된 긍정적 사고를 읽을 수 있었다.

이어 김 신임 총동창회장은 스스로 ‘느리다’고 밝혔듯이 조용한 어투로 천천히 취임사를 읊었다. 그야말로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였다. 바둑 고수인 김 신임 총동창회장은 이번 소동의 파장에 대해 몇 수(手) 내다보았고, ‘꿈’과 ‘마음’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순수한 정신세계를 열어 보였다. 총동창회에 ‘좋은 마음가짐의 좋은 기(氣)’가 흐를 것 같았다.

신임 사무총장 소개에서 현응열(29회) 동문은 “잘 부탁한다”는 인사말을 건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로 동문으로 배대결(13회) 김화옥(14회)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 김인구(24회·동기회 사무국장) 동문이 소개됐다.

동창회장기 전달식을 끝으로 이·취임식을 마치고 회관 1층 우미옥 식당에서 단출한 뒤풀이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서 허부남(37회) 집행위부회장이 박 전임 총동창회장과 김 신임 총동창회장, 옥동훈(25회) 전 사



총동창회 친구회장 이·취임식 뒤풀이 장소에 등장한 축하과일바구니. 허부남(37회) 집행위부회장이 마련했다.

무총장을 위해 마련한 과일바구니 증정식이 열렸다. 이날 뒤풀이 경비는 박 전임 총동창회장이 찬조했다.

## “전자투표 거쳐 총동창회장 배출”

## 비상 임시이사회, 압도적 찬성 표결

‘비대면 비상 임시이사회’. 낯설지만 불가피한 의례였다. 지난 1월 27일 제38대 총동창회장을 선출하는 투표가 열렸다. 전자투표였다(사진). 1가지 안건에 대한 찬반 결정이었으나 시간은 6시간 걸렸다. 그만큼 중차대한 일이었다. 전자투표는 전문용역업체에 맡겨 실시했고, 투표결과와 자료보관은 1주일이었다.

투표인수 총 139명 중 90명이 투표했다. 지난 1월 23일의 정기이사회 투표자 수보다 5명이 많았다. 관심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후보자는 김대옥(29회) 2수석부회장이었다. 투표 마감 결과 참석 90명에 찬성 87명, 반대 3명으로 나타났다. 개표 과정이 필요 없었다. 마감시간과 동시에 결과가 나왔다. 96.67%의 찬성률로 제38대 총동창회장이 확정되었다. 압도적 찬성은 화합과

단합을 바라는 동문들의 뜻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투표결과가 나오자 박종찬(25회) 전임 총동창회장은 곧바로 밴드를 통해 내용을 공개하고, 추후 일정을 간략히 설명했다. 박 전임 총동창회장은 “지난 3년의 과거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속을 스쳐 지나간다. 그동안 신세진 동문들께 제 마음 속 깊숙한 바닥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대옥 신임 총동창회장 역시 밴드를 통해 “최근 일련의 사태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동문들을 다독이고, 총동창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우선 초점을 맞추겠다. 열린 동창회, 화합의 동창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모교 80년사 자료 수집 공고

총동창회는 모교 8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박종찬 총동창회 고문)를 지난 8월 15일 출범시켰습니다. 2022년 4월 25일 발간을 목표로 모교 80년사 편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난관도 있습니다.

경남중·고 모교에 보관된 자료를 정리해 본 결과, 많은 기간에 걸쳐 자료 부실 혹은 부재가 드러났습니다. 자료가 빈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교 80년사 편찬은 경남중·고의 역사책으로서 사상 처음 만드는 기념비적 과업입니다. 동문님들께서 개인 소장하고 계신 학창시절의 오랜 자료를 흔쾌히 보내주셔서 흘러진 역사를 연결하는데 도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복원작업이 진행 중인 경남고 덕형관(원형교사)에 조성될 ‘역사박물관’(가칭)에 전시될 것입니다.

**1 자료의 종류:** 월보, 학보, 교무 행정서류, 사진, 전산자료, 교복, 모자, 단추, 명찰, 상장, 상패, 앨범 등등 학창시절과 연관된 모든 물품

**2 자료를 보내실 때** 기수와 성함은 물론 간단한 설명 쪽지(날짜, 내용) 포함

**3 보내주신 자료는** ‘착불’로 함(우송료는 편찬위원회 부담)

**4 보내주실 곳** ●우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8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관 5층 모교 80년사 편찬위원회  
●이메일: parkgyver2@naver.com

**5 기간:** 2022년 2월까지

경남중고등학교 모교 8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박종찬





# “소란스러운 총동창회, 속히 정상화시키는데 최선”

## 김대욱(29회) 제38대 총동창회장

-제38대 총동창회장 선임을 축하합니다. ‘회장 선출 소동’이란 초유의 비상한 시기에 ‘비상 임시이사회’의 전자투표 방식으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소동이 동문들에게 안긴 마음의 상처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취임 소감과 함께 이를 치유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동기회 밴드가 이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기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의견들을 개진하기 앞서, 제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하는 점을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은 참으로 미묘하고 민감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할수록 서로 진흙탕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저는 제가 총동창회장직을 조용히 수락하고 소란스러운 총동창회를 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오히려 29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 봐 주시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해의 폭이 넓어지리라 희망합니다.

-취임사에서 모교인 경남고에 마음의 빛이 있다 했는데, 연관된 학창시절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저는 편모슬하에서 어렵게 자라서, 고등학교도 거의 고학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고교시절을 떠올리면 여러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캠퍼스 등 좋은 기억들만 가득합니다.

-경남고만 나온 경남중고 총동창회장으로서 경남중에 대한 관심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사실 경남중 입시에 실패하고 대신중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동기들이 경남중 출신이고, 저희 총동창회 이름도 경남중고 총동창회인 지라 경남중을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선후배 동문들의 마음을 얻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모임에 부지런히 다가가려는 리더의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헌신이 따라야 하는 대목입니다. 선후배 동문들과의 잦은 만남과 모임에 각오는 서셨는지요?

▲여러 가지로 모자란 부분이 많은 사람이라 더욱 발로 뛰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간 꾸준히 해온 동호회

제38대 경남중고 총동창회장에 김대욱(29회) 동문이 선출됐다. 지난 1월 27일 치러진 비대면 비상 임시이사회 전자투표에서 96.67%의 찬성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지난 1월 2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 김 신임 총동창회장은 2수석부회장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총동창회장이란 중책을 맡게 됐다. 업무 파악과 조직 재구성 등으로 여념이 없는 김 신임 총동창회장으로부터 취임 소감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김대욱 신임 총동창회장은 여러 지구별, 직능단체별 모임 등에 자신이 먼저 다가가 마음을 얻겠다고 말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 “여러 지구, 직능단체 모임 등에 먼저 다가가 생각 박 전 회장 조언 구해 그의 ‘좋은 자질’ 활용할 터 이태석 신부 미니동산덕형관의 역사관 조성에 노력”

모임-바둑, 골프, 트레킹 등-에 더해 여러 지구별, 직능단체별 모임 등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박종찬 전임회장의 훌륭한 자질을 끌어쓰겠다고 했는데, 어떤 류(類)의 자질을 어떻게 펼쳐 보이려고 하니까?

▲박종찬 전임회장의 남다른 자질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두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용의주도함, 결단력, 추진력은 범인이 흉내 내기 힘든 바가 있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과 이인삼각의 자세로 늘 조언을 구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 그 좋은 자질들이 십이분 제 재임기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총동창회에서 2수석부회장, 집행위부회장(분과위원장) 등 임원으로 활약해 총동창회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보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총동창회 대상 가입자 수에 비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의 수가 너무 작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총동창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참여 동문의 수를 늘

려야 합니다.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소통을 거의 하지 않는 등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경동창회와의 경직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입니까?

▲이 부분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한번씩 재경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제가 놀랄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이 알력, 불화의 역사가 상당히 뿌리 깊고 또 당사자 상당수가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만큼 새로 회장으로 취임하는 제가 쉽사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원론적으로는 우선 시간을 두고 재경 동문들과 꾸준히 대화를 나누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힌 다음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보다 화합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동창회의 향후 과업으로 경남고 이태석 신부 미니동산과 덕형관의 역사관 조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모두 약 20억원이 소요되는 벅찬 일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두 사업은 우리 총동창회에 중요

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사회에 대한 보은, 둘째 후배들에게 경남중고 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는 일입니다. 총동창회관 건립기금 모금할 때의 열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조만간 본격적인 캠페인이 시작되면 저부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마중물을 대겠습니다.

-박종찬 전임회장께서 많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자 4천명 달성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이 목표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 있는지요?

▲동창회보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4,000명 혹은 그 이상을 목표로 열심히 뛰어 야 하고, 그 첫걸음은 총동창회 참석 동문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는 것입니다.

-취임사에 파장과 공명현상, 현대물리학의 ‘끈이론’, 불교의 돈오점수(頓悟漸修)와 몰록 깨달음 등 철학적이 며 불교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기성찰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과 공부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어지러운 세상에 올곧은 신앙을 가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 개인적인 인연으로 불교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24회 선배님 중에 한산 김윤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법조인으로 계시면서 사십이 넘은 나이에 문득 불교에 흥미를 느껴 드디어는 수많은 불교경전을 번역해 내셨습니다. 그 중에 ‘잡아함경(雜阿含經)’을 상당한 시간 정독한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명이 있습니까?

▲특별히 좌우명이랄 것은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무아(無我)와 불이(不二)를 늘 새기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조선소 생활 십여년 후 유럽 소재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한국 에이전트 사무실을 오픈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공학과 졸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에서 십여년 근무  
\*1992년 (주) TMM리닝 창립  
\*2010년 덴마크 왕실/조선기자재협회 표창

<가족관계>

부인, 2남1녀, 손녀들, 손자 하나



# “낮은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동문들의 마음 얻겠다”

## ■ 김대욱 제38대 총동창회장 취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님 그리고 동기 여러분.  
제38대 총동창회장의 중책을 맡게 된 29회 김대욱 인사말씀 올립니다. 원래 감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품인 데다가,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미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회장직을 맡게 되니 여러 가지로 떨리고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일은 벌여졌고, 취임식도 치렀으니 제가 가진 열과 성을 다하여 이 자리를 욱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먼저 총동창회란 우리 경남중고인에게 어떤 모임인가를 생각합니다. 저희들 인격의 상당부분은 중·고등학교,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교육환경, 교우관계, 선생님들의 훈육 등 많은 것들이 감수성 예민한 시절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인격이야말로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살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좋은 인격은 좋은 마음가짐을 낳고, 좋은 마음은 좋은 파동을 낳습니다. 이 파동은 세상 끝까지 가서, 다른 비슷한 좋은 파장을 가진 존재들과 공명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공명현상이 조화를 일으켜서 행운이든 불운이든 모든 운을 만들어냅니다.

현대물리학의 총아 ‘끈이론’에서는 세상은 11차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원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극미의 세계에 무려 7개의 차원이

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7개의 차원에서 어떤 조화가 이루어질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만, 비슷한 파동끼리의 공명현상이 모든 조화의 핵심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인격일진대, 그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중·고교 시절은 우리들 마음에 늘 각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고에서만 수학했습니다만, 경남고에 늘 일종의 마음의 빛이 있다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38대 회장직을 맡게 된 것도, 이 빛을 청산하라는 인연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중고 총동창회는 제36, 37대 총동창회장 박종찬 시대를 맞아 획기적인 도약, 말 그대로 quantum leap(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숙원이던 총동창회관 건립은 물론, 9개의 지구동창회 결성, 여러 직능단체의 재정비 등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수많은 모임에 직접 참석하여 50대 이하의 후배들에게도 이름을 불러주며 먼저 다가서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많은 후배들이 마음으로부터 총동창회에 애정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선후배님들이 이제야말로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중흥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동창회에 기여할 바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38대 회장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분 위기를 살리고 나아가 총동창회를 더욱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 돈오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오, 몰록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점수, 그 후 꾸준히 닦아나감

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동창회에 필요한 것이 말하자면 이 점수의 정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화합의 정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총동창회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세상사 혹 힘들 때, 총동창회를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나오고 마음이 푸근해지며 언제라도 가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능력이 못 미침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낮은 자세로 솔선수범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덕행관의 역사관 조성, 이태석 신부 미니동산 등 약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만찮은 과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동창회관 건립이 우리 동창회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면, 위 두 사업은 우리 경남중고 총동창회가 지역사회에 보은하는 일이자 후배들에게 경남중고인의 긍지를 심어주는 일입니다. 이 일은 물론 많은 동문들의 자발적인 기금 참여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 본격적인 캠페인이 시작되면 저부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마중물을 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 여러분.

우리 모든 존재는 가없는 인연으로 서로 얽혀 있어 하나라고 합니다. 이 ‘불이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또 동창회에 임하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최선 다했고, 원 없이 동문회 사랑...애정 듬뿍 받아가”

## ■ 박종찬 제37대 총동창회장 이임사

나날이 단합되고 있는 동문회를 느끼시는 국내외 동문 여러분.

2년 재임으로 시작했던 제36대 총동창회장 직책이 동창회관 구입기금 20억원 모금이 지연이 되면서 개관까지 책임을 지라는 동문들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1년 임기의 제37대 회장까지 하면서 오랫동안 밀려온 숙원사업을 하나씩 마무리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국내외 많은 동문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선후배간 사랑의 물꼬를 텃습니다. 이제 정이 흐르는 동문회로 변한 것 같습니다. 무미건조하지 않아 만남이 그리워지는, 다수가 참가하는 동문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평준화 이후 졸업생인 31회 이후 후배들에게 명문고 출신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선배로서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동문회의 미래 모습은 그들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느 고교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자긍심의 후배들이 가득한 동문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총동창회의 기둥이 될 30대 기수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기대합니다.

보통 자리를 떠날 때 시원섭섭하다는 표현을 쓰지만, 저는 가진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로타리언으로서 배웠던 초아의 봉사정신으로 원 없이

동문회를 사랑했고, 선후배들의 애정을 듬뿍 받고 물러나기 때문에 섭섭한 면은 전혀 없습니다.

2018년 3월 7일 취임사에서 약속한 것들을 거의 다 지켰지만, 단 한 가지 회보구독료 수금 4,000명 달성은 실패했습니다. 차기 회장 누군가는 이를 수 있는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무엇보다 1,700여명의 동문들의 협조로 이룬 총동창회관 개관은 백미였으며, 우리 모두에게 뿌듯함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버금가는 실적으로는 동문회와 다소 거리를 두고 있던 40회에서 54회까지 후배들을 결집시킨 경남중고미래발전협의회(경미회)의 발족입니다. 지난 2년간 초대회장이었던 40회 우영환 동문의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회원 약70여명의 조직은 대화와 화합을 기반으로 아주 든든한 산하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동문회 발전에 기여할 ‘최고의 하드웨어는 총동창회관’이고 ‘최고의 소프트웨어는 경미회’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서로 돕자’는 경남중학교 교훈과 ‘책임을 다해 열려 살자’는 경남고등학교 교훈을 실천하는 시간이었으며, ‘하면 된다’는 신념을 초지일관 지키면서 회관 구입, YS홍상 경중 설치, 모교 80년사 편찬 준비, 총동창회 밴드 개설, 해외 지역 포함 총동창회 조직 강화 및 정비 등 눈에 보이는 굵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모교의 애로 청취 및 해소를 통해 모교와

더욱 긴밀한 대화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밴드를 통해 선후배간 일상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수시 증면과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동창회보를 통해 동문 역사를 충실하게 기록해나가는 점도 보다 발전된 부분입니다.

이제는 물심양면에서 타교에 결코 뒤지지 않는 명실상부 최고 전통의 명문동문회가 되었음을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재경동창회 집행부와 화합에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재경동창회를 일개 지역동창회로 치부하면 간단합니다만, 2권의 모교 80년사를 발간하려고 하고, 2개의 회보를 발간하는 등 타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는 언젠가는 사라져야 합니다.

총동창회를 향해 문란한 용어로 용마회보에 기사화하고, ‘재부 동창회’라고 지칭한 것은 누워서 침을 뱉는,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총동창회를 치켜세우는 못할망정 총동창회를 깎아 내려 스스로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은 결코 재경동문들 모두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총동창회를 폄하하면 자기 출신을 부정하는 비극입니다. 물론 이런 안타까운 일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훌륭한 후배들끼리 얼마 안 가 자연스럽게 해결하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수많은 선후배 동문들의 사랑을 한껏 받고 이임하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기사 5면에 넘김>



# 소통 부재가 낳은 불신, 결국 초유의 '흑역사'로

사랑과 존경의 동창회 질서 훼손 시 파국 초래 교훈 얻어  
용마 자긍심·명예 되찾을 화합과 우정의 '대반전 결단' 간절

## 총동창회장 선출 소동 파장과 극복 방안

제38대 경남중고 총동창회장 선임과 관련하여 후보자 투표 결과 부결, 신임 회장 자격 인증 논란, 정기 이사회 및 총회 효력 여부 시비, 그 과정에서 내용 증명 발송 등 동창회 70년 역사에 초유의 소동이 벌어졌다. 이번 소동에서 동문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연관 기수의 동기생 일부의 집단행동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 ■소동의 발단과 파문 확산 원인

이번 소동의 시발은 차기 총동창회 사무총장 선정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2월 24일 저녁 느닷없이 차인용(31회) 동문이 차기 사무총장에 '임명'됐다는 글이 밴드에 올랐다. 차 동문과 동기생인 김성원 동문이 올린 것이다. 차 동문은 이달 20일 총동창회 밴드에 가입했다. 동문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안을 차기 회장 후보인 박성철(29회) 1수석부회장이 아닌 김 동문이 무슨 자격으로 발표했다, 라는 의문이 폭증했다.

'차인용 사무총장 카드'는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과 박 1수석부회장(현재는 아니지만 구분을 위한 존칭) 간 큰 장벽이 되고 말았다. 박 총동창회장은 박 1수석부회장 지명철회 발표까지 몇 차례의 우려 표명과 가시적 조치(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1수석부회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불신의 벽이 세워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 어떻게 이처럼 불신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그 답은 지

난 1월 3일 박 1수석부회장이 밴드에 올린 글로써 가늠해 볼 수 있다.

### ■박종찬 총동창회장의 주장

박 총동창회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밴드를 통해 박 1수석부회장에 대한 차기회장 지명을 철회했다. '차인용 사무총장 카드'는 박 1수석부회장의 판단력에 대한 회의감을 박 총동창회장에게 안겨줬다. 박 총동창회장은 차기회장 후보가 현 집행부와 대화를 단절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 다수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동문회를 파괴하는 행위로 평가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이대로 간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박 1수석부회장에 '가시적 변화'를 신속히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결사해지의 심정으로 박 1수석부회장에 대한 지명철회라는 결단을 내렸다.

### ■박성철 1수석부회장의 주장

박 1수석부회장은 자신의 입장을 2021년 1월 3일자로 밴드에 올렸다. 박 1수석부회장은 자신을 지난해 12월 15일 용마의 밤 행사에서 취임식을 가졌고 올해 1월 1일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총동창회장이라고 밝혔다. 회칙 내용의 상호 모순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정식 회장 신분임을 역설했다. 이 밴드글에서 박 1수석부회장은 박 총동창회장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비판 내용을 요약하면, ▲기부금과 다에 따라 동문 차별한다. 눈치보여 동참 기피 기현상 발생 ▲고액기부자 부재 기수 총동창회장 배출 배제 ▲차기 회장 지명철회 회칙상 근거 없다 ▲총동창회 사조직화 내지 사병화 느낌. 특정 동문 몇몇 무소불위로 총동창회장 악 ▲특정인 총동창회 운영 전반 좌지우지 소문 파다 등이다. 이는 여러 동문의 중론을 모았고, 의논을 거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 수위의 비판이라면, 불신의 강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박 총동창회장의 집행부를 개혁의 대상, 즉 적폐세력으로 평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인용 사무총장 임명'을 발표했던 김 동문이 지난해 12월 19일 총동창회 밴드에 가입하면서 올렸던 글 '破邪顯正(파사현정)'의 의미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 ■'소동 해법' 찾기 떨어진 접점

박 총동창회장은 지명철회 발표 전까지 몇 차례 박 1수석부회장에 생각의 변화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는 좌절됐지만 문제를 풀어가려는 대화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박 1수석부회장의 입장 발표는 매우 강경했고 박 총동창회장 임기 3년이 비정상적이었고 개혁 대상으로 평가한 내용이었다. 이는 박 총동창회장으로선 결단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박 총동창회장은 이를 두고 '하극상'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대화로써는 이번 소동의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박 1수석부회장은 자신이 회장직을 수행 중이라고 확신했고, '신법우선'을 적용하여 회칙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밴드글을 통해 내보였다. 하지만 회칙을 찬찬히 분석하면, 이 시점에서는 신임 총동창회장은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6면에 상세한 내용 기술). 박 1수석부회장의 말대로 회칙 내용 상호 충돌 시 신법우선 원칙을 적용하면,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회칙에는 회장 선출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회장 선출 절차는 동창회의 근간이며 결코 삭제할 수가 없다. 오히려 새 조항(제20조 11항)에 오류가 있다는 뜻이다. 새 조항을 수정하여 충돌 요소를 없애는 게 순리였다.

### ■소동을 악화시킨 '내용증명'

지난 1월 23일 열린 제58차 정기 이사회 및 총회를 앞두고 박 총동창회장은 경로를 통해 박 1수석부회장의 용퇴를 몇 번 타진했다.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선출안 부결을 확신했기에 더 이상의 분열을 막고 '생채기'를 봉합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박 1수석부회장은 내용증명으로 응수했다. 그 내용은, 박 총동창회장이 회장을 참칭, 소집권자가 아니면서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했다, 이사회 및 총회는 효력이 없고, 결의 내용은 원천무효이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는 불협화음을 더 고조시키는, 갈등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 ■다시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이번 총동창회장 선출 소동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쓴 경험이었다. 동창회사에 기록될 큰 상처를 남긴 '흑역



지난 1월 23일 비대면 정기이사회 투표 시간 중에 열린 '4자회담'. 뒤늦은 대화의 시간만큼이나 작은 모습이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사'가 될 것이다. 이번 소동의 주역들은 물론이겠지만, 많은 동문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책임 소재를 불분하고 총동창회장 선출 문제를 두고 벌인 선후배간 갈등에 명문 출신의 자긍심이 여지없이 꺾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남중고인(人) 용마들의 위기 극복능력은 대단했다. 박 총동창회장이 주도는 했지만, 선후배 동문들이 합심하여 최선의 해법을 도출해낸 것이다. 소동 발생 거의 한달 만에 동창회가 정상을 회복 중에 있다. 김대욱(29회) 제38대 경남중고 총동창회장 체제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박 총동창회장은 역사의 순리대로 전임 총동창회장이자 고문이 되었다.

김 신임 총동창회장은 균열된 동문사회의 복원과 동문들 가슴에 남은 생채기를 씻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졌다. 김 신임 총동창회장은 이미 각오를 밝혔고, 동문사회에 든든한 긍정의 기(氣)를 전파했다. 특히 이번 소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된 29회 동기생들의 심란함을 다독이고, 벌어진 우정의 틈새를 메우는데도 역량을 쏟아야 한다.

박 1수석부회장이 내용증명 이후 어떤 대응을 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대세를 읽어야 한다. 박 1수석부회장을 돕는 주변인들의 자중도 절실하다. 그가 전임 집행부를 개혁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만든 정보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이사회 표결 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지난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의 결과는 박 1수석부회장이 선택해야 할 길을 일러주고 있다. 동문 대다수는 용마의 자긍심과 명예를 되살릴 희망의 빛을 기다리고 있다. 소동에서 희망이라는 대반전을 이번 소동의 멋진 종결에서 찾고 싶은 것이다. 박 1수석부회장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이번 소동에서 박 1수석부회장의 심적 상처가 누구보다도 컸을 것이다. 동문사회가 그를 보듬어 줄 때 상처는 빨리 나을 것 같다. 박 1수석부회장이 동기생인 김 신임 총동창회장을 인정하고, 그를 도와 동문회의 화합과 단결에 나서 훗날 진정한 '용마의 월계관'을 머리에 쓰길 바란다.

### <기사 4면에서 받음>

얼마 전 후임 제38대 회장 선출 문제로 옥에 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소란을 통해 꽤 많은 동문들이 총동창회 회칙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동문회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는 기회를 가졌다는 좋은 쪽의 해석을 하면서 위로를 할까 합니다.

신임 29회 김대욱 총동창회장은 용마골프회와 용마바둑회 회장으로 동문회에 오랫동안 기여를 해 온 바 동문애를 실천하는 방식을 익히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 동문회는 더욱 도약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함께 많이 도와줍시다.

동문여러분 모두 건승하십시오. 영원한 경남중고인을 위하여!



# ‘회장 선출 절차’는 삭제할 수 없는 회칙 근간

개정 시 추가된 ‘제20조 11항’의 오류 간과, 화(禍) 불러  
신법우선 원칙 주장대로면 회장 선출 절차 사라지는 오류  
정기이사회 의안으로 제20조 11항 삭제 가결, 혼란 없애

## 회칙, 무엇이 문제였나

금번 제38대 총동창회장 선임 소동에서 회장 선출의 방식과 절차의 근거이자 기준인 회칙이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23일 비대면 정기 이사회에서 문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바르게 잡았다. 논란이 된 1월 23일 이전의, 지난해 10월 28일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회장 선출 관련 회칙을 살펴보면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회칙 제20조 2항에는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라고, 제20조 11항에는 ‘신구회장 이·취임식은 12월 용마의 밤 행사 때 거행하며 신입회장의 임기는 신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회칙 20조 3항에는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 2수석부회장은 차차기회장 후보가 된다’라고 규정했다.

(1)회칙을 원본 그대로 해석할 경우(회칙에 하자가 없다는 판단)

20조 2항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는 규정이 존재한 상황에서 11항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2월 용마의 밤 이전에 이사회와 총회가 열려서 1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회장 선출 과정(이사회 및 총회)이 없었다. 그러므로 신입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용마의 밤 행사 신규 회장 이·취임식은 일종의 상징적 퍼포먼스였지, 효력 측면에서는 원천무효인 셈이 된다. 용마의 밤 이전에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게 불찰이다.

(2)20조 2항의 이사회 및 총회를 1월 중순의 정기 이사회 및 총회로 간주한 경우-통상적으로 연초(3

월)에 열린 정기 이사회 및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해 왔다. 관례이자 전통이다.

①이사회 및 총회 개최를 1월 중순으로 간주하고 11항을 보면, 용마의 밤 행사 시 신구회장 이·취임식 개최와 임기 시작일 ‘신년 1월 1일’ 규정은 그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신입회장이 선임되지 않았는데 이·취임식에 임기 개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제20조 2항과 11항이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사회 및 총회 개최를 1월 중순으로 간주하고 20조 2항에 문제가 없다면, 20조 11항은 모순으로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실효력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②이사회 및 총회를 1월 중순 열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11항에 문제가 없다면, 박성철 1수석부회장은 2021년 1월 정기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며, 신년이 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는 ‘회장 부재’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②의 해석은 그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하겠다.

## (3)회칙 내용 상호 충돌 인정 상황

①신법우선 원칙을 수용한 경우-회칙 제20조 2항과 11항이 충돌 때 2020년 10월 28일 회칙 개정 당시 새로 추가된 11항에 따라 2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회칙 개정 시 2항 삭제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2항이 삭제되었을 경우 경남중고 총동창회 회칙에는 회장 선출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제20조 3항에 따르면 1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후보’의 신분이다. ‘후보’ 자격을 벗어나 정식 회장이 될 방안이 없게 된다. 회장 선출의 절차가 없는데, 즉 신입회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11항의 신구회장 이·취임식은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용마의 밤

에 가졌던 신구회장 이·취임식은 실효력이 없는, 단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였다는 의미가 된다.

②신법우선 원칙을 적용(2항 삭제)하고, 1수석부회장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선출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박성철 1수석부회장 주장)-이 견해는 총회에서 선출된 1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 내정자로서 선임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사회 및 총회에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용마의 밤 때 이·취임식을 거행하고 신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자의적 해석이다. 1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때에는 회장이 호명하여 박수로 승인받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다. 축제의 자리인 정기총회에서 인물의 자질과 자격을 검증하지는 않는다. 회장의 의중을 존중하여 박수를 치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 하면 회장 후보 자격인 1수석부회장에 대한 인물 검증 과정이 없게 된다. 또한 1수석부회장직을 수행해온 기간 동안에 보여준 능력과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할 기회가 사라진다. 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검증이다. 회장 선출 절차는 동창회와 회칙의 근간이다.

## (4)회칙 제20조 2항 존속과 11항 삭제 이유

위에서 적시한 대로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소화하는 이사회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신법우선 원칙을 내세우나 신법에 하자가 있음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신법을 손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옳은 방향이다. 2항과 11항은 내용이 충돌한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어느 것이 존속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자명하다. 2항은 회장 선출 절차의 근간으로 함부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아니다. 11항은 효율적 회장직 수행을 고려하여 회칙에 추가된 내용이다.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며, 이 조항이 없더라도 동창회 운영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는 바로 지난 1월 23일 비대면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다. 바른 길을 찾아간 것이다.

## 〈제38대 총동창회장 선임 소동 개괄적 전말〉

- 2020년 12월 24일 오후 4시경 박성철 제1수석부회장, 박종찬 총동창회장에게 차기 사무총장으로 차인용(31회) 동문 선정 통보.  
박총동창회장, ‘자격 우려’ 표명. 재차(오후 9시 10분) ‘책임자 아니다’는 의견 제시.
-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 김성원(31회) 동문이 총동창회 밴드에 ‘차인용 동문 사무총장 임명’ 글 게재(회칙 16조 위배).  
-박종찬 총동창회장, 박성철 1수석부회장에게 유감 표명(오후 10시 57분).
- 12월 30일 낮 박종찬 총동창회장, 박성철 1수석부회장에게 ‘가시적 변화 신속히 보여주지 않으면 지명철회 수순 밟는다’고 통보.
- 12월 31일 오후 4시 13분 박성철 1수석부회장, 간절한 인사성 답변 보냄.  
오후 4시 26분 박종찬 총동창회장, 재차 성의 있는 답변 오후 6시까지 요청. 불응 시 밴드상으로 지명철회 글 게재 예고 통보.  
오후 7시 7분 박종찬 총동창회장, 밴드에 박성철 1수석부회장 차기 총동창회장 지명 철회 밝힘.
- 2021년 1월 3일 오후 박성철 1수석부회장, 밴드에 ‘인사말과 전임회장의 총동창회 밴드 게재 글에 대한 입장’ 제하의 글 게재(내용은 5면 기사 참조)
- 1월 4일 오후 박성철 1수석부회장, 일행 6명과 총동창회 사무국 방문, 옥동훈 사무총장과 면담. 일행-김경진(27회), 이충원 정길 이승호 안청홍(이상 29회) 차인용(31회).  
-사무총장에 김경진(27회) 동문 새로 선정/동창회보 편집주간 정길, 차인용(31회) 동문 기용 통보.
- 1월 6~7일 박종찬 총동창회장, 4차에 걸쳐(거리두기로 4명 참석) 집행위부회장단 대책회의

- 1월 23일 비대면 정기 이사회 및 총회 개최 확정/3가지 안건-회칙 개정, 결산서 예산서 승인, 제38대 총동창회장 선출 찬반 투표
- 1월 둘째 주 중반 무렵 박성철 1수석부회장, 김경진 동문을 통해 구두상으로 동창회보 편집주간, 사무국장 유임 통보.
- 1월 11일 박종찬 총동창회장, 박성철 1수석부회장 회장 지명철회를 취소.
- 1월 15일 사무국, 비대면 정기 이사회 및 총회 개최 안내문 발송
- 1월 21일 박종찬 총동창회장, 김경진 동문에게 박성철 1수석부회장의 용퇴를 촉구하는 카톡글 보냄
- 1월 21일 박성철 1수석부회장, 박종찬 총동창회장에게 내용증명 발송.
- 1월 22일 박종찬 총동창회장, 내용증명 접수. 밴드에 내용증명 내용 공개.
- 1월 23일 제58차 비대면 정기 이사회 및 총회 개최  
-이사회 투표 결과, 박성철 1수석부회장 회장 선출안 부결(찬성 13-반대 71)
- 1월 23일 낮 박종찬 총동창회장-옥동훈 사무총장-박성철 1수석부회장-김경진 사무총장 내정자 4자회담 성과 없이 종료.
- 1월 24일 오전 박종찬 총동창회장, 이사회 결과 밴드에 고지.  
-김대욱(29회) 2수석부회장, 차기 회장 후보 추대/비대면 임시이사회 1월 27일 전자투표 실시 예고/박성철 1수석부회장 이의 제기 방식에 따라 대응 천명
- 1월 27일 비대면 임시이사회 전자투표 실시  
-김대욱 2수석부회장, 제38대 총동창회장 투표 가결. 찬성87-반대3.
- 1월 29일 오후 제37, 38대 경남중고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 회장 선출 소동 항배, 결국 '표심'에 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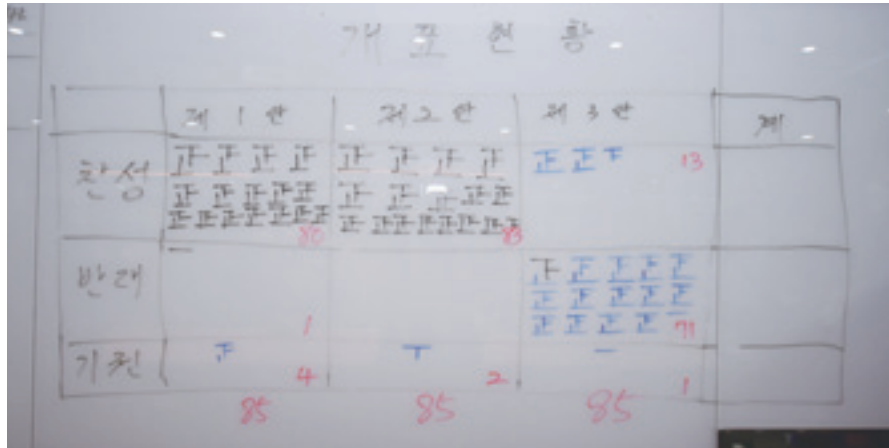
박성철 1수석부회장 불신임 투표  
“원천무효” 주장하나 예상된 대세

## 제58차 정기 이사회 및 총회

2021년 1월 23일, 경남중고 충동창회 역사상 처음으로 회장 후보가 불신임 받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이날 열린 비대면 제58차 정기 이사회 및 총회의 결과였다. 당사자인 박성철(29회) 1수석부회장은 행사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투표 결과 찬성 13, 반대 71로 나왔다. 박 1수석부회장과 대립각을 세운 박종찬(25회) 전임 충동창회장이 예상한 결과였다. 대세라는 ‘합의’가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치르는 비대면 행사인지라 이날 정기총회는 이사회 결의 사항을 자동 인준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되었다. 이사회 안건은 △충동창회 회칙 변경 및 삭제 △2020년도 결산서 및 2021년도 예산서 심의 승인 △제38대 충동창회장 선출이다. 물론 관련 내용은 사전 유인물로 검토됐고, 투표 용지 양식도 고지됐다.

이날 이사회 개회 전 충동창회관 내에는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으나 이후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오전 10시 박 전임 충동창회장의 개회선언과 간략한 인사말이 있었고, 감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다. 의안심의는 직접 비밀투표로



비대면 정기이사회 충동창회장 선출 투표 개표 집계 게시판에 나타난 결과.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진행됐다. 3안건 찬반 투표이다. 투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하고, 개표를 거쳐 곧바로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날 공정한 투표를 위해 배대결(13회) 김화옥(14회) 두 원로동문이 참관인을 자청하며 투표소를 지켰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회관을 방문한 동문들은 1층 우미옥 식당에서 삼삼오오 앉아서 이번 소동의 경위를 탐문하고 추이를 전망하기도 했다.

오후 4시 투표가 종료되자 곧바로 개표에 들어갔고, 결과가 나오자 박 전임 충동창회장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이번 소동을 일단락하는 장면이었다. 한편 경미회는 하루 뒤 이번 정기이사회 결의 사항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기이사회서 거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된 회칙 개정과 2020년도 결산



나이 90을 넘긴 양종학(4회) 원로동문이 낯선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를 찾았다. 이번 소동의 심각성이 매우 엄중하다는 뜻을 몸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서 및 2021년도 예산서 심의 승인 내용을 소개한다.

### <충동창회 회칙 변경 및 삭제>

- 제19조(임원) 5항- ‘수석부회장 : 1명 또는 2명(1수석과 2수석)’으로 변경.
- 제21조(임원의 직무) 3항- ‘수석부

회장(또는 1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변경

-제2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1항- ‘신규회장 임기취임식은 12월 용마의 밤 행사 때 거행하며 신입회장의 임기는 신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삭제

### <결산서 및 예산서 심의 승인>

2020년도 사무국 수입과 지출은 각 2억3,717만원(전년도 이월금 6,406만원, 차기 이월금 2,991만원)이었다. 수입 주요 항목으로 임원회비 1억2,800만원, 기별분담금 4,010만원이다. 지출 주요 항목으로 모교지원금 1,775만원(경남고 245만원, 경남중 1,530만원), 조직강화비 4,651만원, 일반관리비 1억979만원 등이다. 용마장학회의 목적사업비(모교 장학금) 지출은 9,867만원이다.

2020년 동창회보 운영 결산서는 1억7,114만원, 야구후원회 결산서는 3,737만원, 용마골프대회 운영 결산서는 3,426만원의 예산이 수입·지출됐다.

2021년 사무국 운영 예산안은 1억9,191만원의 규모로 짜여졌다. 수입(전년 이월금 2,991만원)은 임원회비 1억2,200만원, 기별분담금 4,000만원으로 짜다. 지출부문(이월금 및 예비비 2,894만원)은 모교지원금 1,100만원, 조직강화비 4,530만원, 일반관리비 1억667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 용마장학재단, 경남고에 과감한 지원 실내연습장 개보수비 7천만원 전달 경남중에는 동계훈련비 500만원

○...경남중고 용마장학재단이 지난 세월에 모교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용마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남고 야구부 실내연습장 수리 지원금 7천만원 전달식을 경남고 교장실에서 가졌다(사진 ①). 이 자리에는 용마장학재단 이윤호(19회) 이사장, 옥동훈(25회) 충동창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과 학교 측에서 정대호 교장, 전광렬(44회) 감독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경남고에 7천만원이란 고액의 지원금을 전달하게 된 것은 야구부 실내연습장이 지난 태풍에 파손돼 선수들이 훈련하기에 힘들다는 고충과 개

## 연이은 모교 지원

보수의 긴박성을 전해 듣고 충동창회와 용마장학재단에서 결단을 내린 조치이다.

다음날 오전 11시 경남중 교장실에서 야구부 동계훈련지원비 전달식이 열렸다(사진 ②). 용마장학재단 이 이사장을 대신한 남진현(19회) 충동창회관장, 옥 사무총장, 윤 사무국장이 경남중을 방문, 김미정 교장, 김상욱(53회) 야구부 감독 등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500만원을 전달했다.

### 충동창회, 모교 야구부 후원금 전달

경남고 1,500만원·경남중 500만원 지원  
○...충동창회는 지난해 12월 4일 모교 경남중고 야구부 후원금 전달식과 마스

크걸이 기증식을 각각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남진현(19회) 충동창회관장, 옥동훈(25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일행은 경남중 교장실을 찾아가 김미정 교장에게 야구부 후원금 500만원과 충동창회에서 코로나19 극복기원을 담아 제작 주문한 마스크걸이 500개를 전달했다(사진③).

이어 오전 11시 30분 옥 사무총장과 윤 사무국장이 경남고를 방문, 정대호 교장에게 야구부 후원금 1,500만원과 마스크걸이 600개를 전달했다(사진 ④).

### 경남고 야구부 용품구매 지원금 전달 충동창회·덕형리그 공동행사

○...충동창회와 덕형리그는 공동으

로 지난 1월 14일 경남고 교장실에서 야구부 용품구매 지원금 1,0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사진 ⑤). 충동창회에서는 옥동훈(25회) 사무총장과 윤원욱(39회) 사무국장, 덕형리그에서는 이문열(29회) 회장과 강훈(41회) 경기이사, 경남고에서는 정대호 교장과 전광렬(44회) 야구부감독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경남고 정 교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학교운동장 사용이 제한되어 덕형리그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도 지원해주어 충동창회와 덕형리그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옥 사무총장과 이 덕형리그 회장은 후배 선수들이 동계훈련에서 기량을 쌓아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둬 주길 당부했다.





제58차 정기 이사회 및 총회 - 결산·예산서

2020년 사무국 운영 결산서

수입부문(2020 사무국) (2020. 1. 1~2020. 12. 31)

| 과 목 |       | 2020년 결 산 규 모 |                                                                 |
|-----|-------|---------------|-----------------------------------------------------------------|
| 관   | 항     | 결 산 액         | 산 출 근 거                                                         |
| 합계  |       | 237,174,154   |                                                                 |
| 이월금 |       | 64,065,106    |                                                                 |
|     | 전년이월금 | 64,065,106    | 1)은행 보통예금 63,954,049<br>2)현금 111,057                            |
| 회비  |       | 168,100,000   |                                                                 |
|     | 임원회비  | 128,000,000   | 1)회장 50,000,000                                                 |
|     |       |               | 2)자문위원 11,000,000                                               |
|     |       |               | 3)집행위 부회장 30,000,000                                            |
|     |       |               | 4)부회장 및 운영위원 37,000,000                                         |
|     | 기별분담금 | 40,100,000    | 1)2020년도분 40,100,000                                            |
| 기타  |       | 5,009,048     |                                                                 |
|     |       | 5,009,048     | 1)은행 보통예금 이자 9,048<br>2)특별 기부금 (34회 200만원, 44회 300만원) 5,000,000 |

지출부문(2020 사무국)

(2020. 1. 1~2020. 12. 31)

| 과 목   |       | 2020년 결 산 규 모 |                                                                                                                                                                                                                                                                                                                                                                                                                                                                                                                                                                                                                                                                                                                                                                                                                                                                                                                                                                                                                                                                                 |
|-------|-------|---------------|---------------------------------------------------------------------------------------------------------------------------------------------------------------------------------------------------------------------------------------------------------------------------------------------------------------------------------------------------------------------------------------------------------------------------------------------------------------------------------------------------------------------------------------------------------------------------------------------------------------------------------------------------------------------------------------------------------------------------------------------------------------------------------------------------------------------------------------------------------------------------------------------------------------------------------------------------------------------------------------------------------------------------------------------------------------------------------|
| 관     | 항     | 결 산 액         | 산 출 근 거                                                                                                                                                                                                                                                                                                                                                                                                                                                                                                                                                                                                                                                                                                                                                                                                                                                                                                                                                                                                                                                                         |
| 합계    |       | 237,174,154   |                                                                                                                                                                                                                                                                                                                                                                                                                                                                                                                                                                                                                                                                                                                                                                                                                                                                                                                                                                                                                                                                                 |
| 모교지원금 |       | 17,750,000    |                                                                                                                                                                                                                                                                                                                                                                                                                                                                                                                                                                                                                                                                                                                                                                                                                                                                                                                                                                                                                                                                                 |
|       | 경고지원비 | 2,450,000     | 1)경고 교직원 추석 선물비 1,500,000<br>2)경고 교감 정년퇴임 및 장기근속 교사 전별금(13명) 950,000                                                                                                                                                                                                                                                                                                                                                                                                                                                                                                                                                                                                                                                                                                                                                                                                                                                                                                                                                                                                            |
|       | 경중지원비 | 15,300,000    | 1)경중 강당 영상장비 지원 15,300,000                                                                                                                                                                                                                                                                                                                                                                                                                                                                                                                                                                                                                                                                                                                                                                                                                                                                                                                                                                                                                                                      |
| 조직강화비 |       | 46,514,390    |                                                                                                                                                                                                                                                                                                                                                                                                                                                                                                                                                                                                                                                                                                                                                                                                                                                                                                                                                                                                                                                                                 |
|       | 회의비   | 13,887,230    | 1)2020년 정기총회 회의비 4,051,630<br>(코모도호텔 식비 2,249,600원,책자 1,027,480원, 기념품 타올(@6,000x100개=600,000원) 외<br>2)기타 모임 및 회의비 7,274,000<br>①고문, 자문위원, 부회장 회의(1/10) 1,238,000<br>②운영위 부회장 회의(1/8, 8/29) 1,294,000<br>③집행위 부회장 신년 모임(1/17, 8/28) 1,426,000<br>④회관 리모델링 진행 보고 회의(2/12) 1,032,000<br>⑤제21대 총선 당선인 축하 모임(4/29) 528,000<br>⑥이사회 및 임시총회(7/7) 1,076,000<br>⑦80년사 회의(7/24) 80,000<br>⑧임시총회 및 이사회(10/28) 600,000<br>3)업무추진비 외 2,561,600                                                                                                                                                                                                                                                                                                                                                                                                                                                                                                                                                                                                                                               |
|       | 경조비   | 2,490,000     | 1)경사 화환 및 축의금 2,010,000<br>①동문 경사 980,000<br>②각 동기회, 지역· 직능· 동호회 행사 440,000<br>③타고 동창회 행사 및 대외 경사 590,000<br>2)홍사 조화 및 조의금 480,000<br>①동문 홍사 480,000                                                                                                                                                                                                                                                                                                                                                                                                                                                                                                                                                                                                                                                                                                                                                                                                                                                                                                                            |
| 행사지원비 |       | 14,975,960    | 1) 9개 지구동창회 모임 격려 지원비 4,300,000<br>①지구회장단 모임 격려금(5/20) 500,000<br>②강서지구 모임 격려금(6/24) 500,000<br>③중부산지구 모임 격려금(7/9) 500,000<br>④남부산지구 모임 격려금(7/15) 300,000<br>⑤해운대지구 모임 격려금(9/18) 500,000<br>⑥남부산지구 송년회 격려금(11/18) 500,000<br>⑦중부산지구 회장 이취임식 격려금(11/27) 500,000<br>⑧해운대지구 송년회 격려금(12/23) 1,000,000<br>2) 직능· 동호회 격려 지원비 6,625,000<br>①경미회 신년 모임 격려금(2/6) 500,000<br>②경미회 족구대회 격려금(6/13) 1,000,000<br>③경미회 족구대회 화랑개관 기념품(모자) 지원 525,000<br>④용마코러스 이태석 기념음악회 참가 격려금(7/24) 500,000<br>⑤덕형리그 모임 격려금(7/25) 500,000<br>⑥경미회 모임 격려금(8/15) 500,000<br>⑦경미회 모임 격려금(10/14) 500,000<br>⑧덕형리그 야구대제전 격려금(10/24) 500,000<br>⑨연론인클럽 모임 격려금(10/27) 300,000<br>⑩경불회 모임 격려금(11/21) 300,000<br>⑪용마코러스 정기 연주회 격려금(11/24) 500,000<br>⑫YES24배 전국고교동문바둑대회 출전 격려금(12/4) 1,000,000<br>3) 홈커밍데이 지원비 2,202,060<br>①4회 졸업 70주년 홈커밍 준비 및 선물 구입비(5/4) 1,202,060<br>②44회 졸업 30주년 홈커밍 격려금(10/31) 500,000<br>③54회 졸업 20주년 홈커밍 격려금(11/14) 500,000<br>4) 동기회 모임 격려 지원비 300,000<br>①38회 동기회 모임 격려금(7/23) 300,000<br>5) 기타 행사 지원비 1,548,900<br>①용마골프대회 지원비(9/14) 1,500,000<br>②명문고 야구열전 경남고 우승 축하 스탬프인 외(11/7) 48,900 |
| 홍보비   |       | 14,853,500    | 1)경남고 졸업식 기념 타올 제작(@5,000X300개) 1,500,000                                                                                                                                                                                                                                                                                                                                                                                                                                                                                                                                                                                                                                                                                                                                                                                                                                                                                                                                                                                                                                       |
|       |       |               | 2)경남중 졸업식 기념 타올 제작(@5,000X230개) 1,150,000                                                                                                                                                                                                                                                                                                                                                                                                                                                                                                                                                                                                                                                                                                                                                                                                                                                                                                                                                                                                                                       |
|       |       |               | 3)마스크 스트랩 구입비(@850X8,000개) 및 포장비 6,848,000                                                                                                                                                                                                                                                                                                                                                                                                                                                                                                                                                                                                                                                                                                                                                                                                                                                                                                                                                                                                                                      |
|       |       |               | 4)마스크 구입비(해외 및 동기회 배포용, @400X4,900개) 1,960,000                                                                                                                                                                                                                                                                                                                                                                                                                                                                                                                                                                                                                                                                                                                                                                                                                                                                                                                                                                                                                                  |
|       |       |               | 5)경남중고총동창회 대표자 및 주수 변경 비용 288,400                                                                                                                                                                                                                                                                                                                                                                                                                                                                                                                                                                                                                                                                                                                                                                                                                                                                                                                                                                                                                                               |
|       |       |               | 6)임원 및 직원 명함 제작비 227,100                                                                                                                                                                                                                                                                                                                                                                                                                                                                                                                                                                                                                                                                                                                                                                                                                                                                                                                                                                                                                                                        |
|       |       |               | 7)용마회 회기 제작비 250,000                                                                                                                                                                                                                                                                                                                                                                                                                                                                                                                                                                                                                                                                                                                                                                                                                                                                                                                                                                                                                                                            |
|       |       |               | 8)임시총회 및 이사회 외 행사 현수막 제작비 130,000                                                                                                                                                                                                                                                                                                                                                                                                                                                                                                                                                                                                                                                                                                                                                                                                                                                                                                                                                                                                                                               |

| 과 목    |        | 2020년 결 산 규 모 |                                                                                                                                                                                                                                                                                               |
|--------|--------|---------------|-----------------------------------------------------------------------------------------------------------------------------------------------------------------------------------------------------------------------------------------------------------------------------------------------|
| 관      | 항      | 결 산 액         | 산 출 근 거                                                                                                                                                                                                                                                                                       |
| 일반관리비  |        |               | 9)회관 개관 기념 소핑팩 제작비(5,000매) 2,500,000                                                                                                                                                                                                                                                          |
|        | 교통비    | 307,700       | 1)업무 활동 교통비 307,700                                                                                                                                                                                                                                                                           |
|        |        | 109,793,217   |                                                                                                                                                                                                                                                                                               |
|        | 인건비    | 70,210,800    | 1)사무국장 및 여직원 1명(복리후생비포함) 60,710,800<br>2)사무국 직원 성과급 9,500,000                                                                                                                                                                                                                                 |
|        | 퇴직금    | 3,809,160     | 1)퇴직적립금 3,809,160                                                                                                                                                                                                                                                                             |
|        | 통신,우편료 | 2,640,520     | 1)前사무국 각종 통신비(일반전화 외, 골든오피스텔) 529,180<br>2)각종 우편물 및 택배 발송비 1,861,340<br>3)SMS(문자) web발송 충전비 (뿌리오) 250,000                                                                                                                                                                                     |
|        | 인쇄도서비  | 1,883,360     | 1)대,소 봉투 제작비 1,694,360<br>2)신문 구독료 189,000                                                                                                                                                                                                                                                    |
|        | 관리비    | 21,393,387    | 1)前사무국 관리비(골든오피스텔) 2,937,090<br>2)사무국 이전 비용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3,031,500<br>3)전기세 2,295,070<br>4)임대료 9,900,000<br>5)사무국 관리비(회관) 3,229,727                                                                                                                                                       |
|        | 제세공과금  | 1,383,030     | 1)제세공과금 1,383,030<br>①재산세 (토지, 건축물분) 885,340<br>②교통유발 부담금 167,550<br>③이전 사무국 (골든오피스텔) 매매 양도소득세 330,140                                                                                                                                                                                        |
|        | 비품비    | 3,445,220     | 1)복사기·FAX 임대료(12개월) 1,560,000<br>2)문서세단기(파쇄기) 구입비 296,820<br>3)코로나 19 마스크 외 소독용품 구입비 114,700<br>4)체온계 구입비(2개) 164,800<br>5)사무국 책장 및 책꽂이 구입비 221,300<br>6)사무국 자료 보관용 외장하드 구입비 179,000<br>7)제습기 구입비(2대) 744,000<br>8)기타 비품 구입비(주차금지콘, 재활용쓰레기통 외) 164,600                                        |
|        | 소모품비   | 3,689,140     | 1)각종 사무용품비 1,516,930<br>2)사무실 소모품비 2,172,210                                                                                                                                                                                                                                                  |
|        | 컴퓨터운영  | 1,338,600     | 1)컴퓨터 운영 제비(홈페이지 호스팅 및 도메인 연장) 278,600<br>2)컴퓨터 프로그램 설치비 160,000<br>3)홈페이지 유지 관리비(SGVISTA) 600,000<br>4)홈페이지 자료 보안 및 구성변경비(SGVISTA) 300,000                                                                                                                                                   |
| 용마의 밤  | 용마의 밤  | 21,643,710    | 1)롯데호텔 식비 외 3,592,410<br>2)용마대상 외 상패 제작비 (기부감사패 등) 8,280,000<br>3)용마대상 황금열쇠 (금10돈) 구입비 2,900,000<br>4)우수직능, 지구 부상 (각 50만원x5개 직능,지구) 2,500,000<br>5)기념품 타올 구입비 (@10,000원x350개) 3,500,000<br>6)리플렛 제작비 394,000<br>7)꽃다발 구입비(3개) 150,000<br>8)사무용품 및 소모품(견과류 외) 구입비 127,300<br>9)운영 경비 외 200,000 |
| 홍상제막식  | 홍상제막식  | 1,502,000     | 1)YS홍상제막식 행사 비용(이벤트업체, 현수막, 기념품 제작 외) 1,502,000                                                                                                                                                                                                                                               |
| 회보계정지원 | 회보계정지원 | 10,000,000    | 1)회보계정 지원금 10,000,000                                                                                                                                                                                                                                                                         |
| 기타     | 잡비     | 55,600        | 1)잡비(등기반송 수수료, 서류발급수수료 외) 55,600                                                                                                                                                                                                                                                              |
| 이월금    | 이월금    | 29,915,237    | 1)은행 보통예금 29,633,290<br>2)현금 281,947                                                                                                                                                                                                                                                          |

2020년 동창회보 운영 결산서

수입부문(2020 회보) (2020. 1. 1~2020. 12. 31)

| 과 목   |   | 2020년 결 산 규 모 |                                                                                                                                                                                                                                         |
|-------|---|---------------|-----------------------------------------------------------------------------------------------------------------------------------------------------------------------------------------------------------------------------------------|
| 관     | 항 | 결 산 액         | 산 출 근 거                                                                                                                                                                                                                                 |
| 합계    |   | 171,140,306   |                                                                                                                                                                                                                                         |
| 이월금   |   | 20,113,590    | 1)은행 보통예금 20,113,590                                                                                                                                                                                                                    |
| 광고비   |   | 17,300,000    | 1)2020년 광고비 (*축쇄판 광고료 미포함) 17,300,000<br>①427호(40회 우영환) 2,000,000<br>②428호(22회 유재진 외) 2,700,000<br>③429호(26회 박효대 외) 6,300,000<br>④430호(43회 강병규) 2,000,000<br>⑤431호(25회 박종찬) 2,000,000<br>⑥432호(20회 강부덕) 2,000,000<br>⑦2019년 광고료 300,000 |
| 회보구독료 |   | 93,893,350    | 1)2020년 회보구독료(총 3,115명=선납미포함) 93,893,350<br>* 선납 : 2021년(98명) / 2022년 이후(114명)                                                                                                                                                          |
| 축쇄판   |   | 29,830,000    | 1)축쇄판 광고료 25,900,000<br>2)축쇄판 판매 대금 3,930,000                                                                                                                                                                                           |
| 기타    |   | 10,003,366    | 1)은행 보통예금 이자 3,366<br>2)사무국 지원금 10,000,000                                                                                                                                                                                              |

지출부문(2020 회보)

(2020. 1. 1~2020. 12. 31)

| 과 목 |   | 2020년 결 산 규 모 |                                                                                                                                               |
|-----|---|---------------|-----------------------------------------------------------------------------------------------------------------------------------------------|
| 관   | 항 | 결 산 액         | 산 출 근 거                                                                                                                                       |
| 합계  |   | 171,140,306   |                                                                                                                                               |
| 제작비 |   | 31,846,177    | 1)제작비(6회) 31,846,177                                                                                                                          |
| 발송비 |   | 36,262,110    | 1)회보 발송료 (해외지역 포함) 29,522,340<br>2)봉투 제작 및 발송 작업 제비 6,739,770                                                                                 |
| 운영비 |   | 61,243,000    | 1)기획·편집비 (편집주간) 24,000,000<br>2)영상편집위원 활동비 3,300,000<br>3)편집주간 32면 이상 증면 발행 성과급 외 10,000,000<br>4)영상편집위원 성과급 2,500,000<br>5)여직원 급여 20,400,000 |



제58차 정기 이사회 및 총회 - 결산·예산서

| 과 목 |   | 2020년 결 산 규 모 |                                                                                                          |
|-----|---|---------------|----------------------------------------------------------------------------------------------------------|
| 관   | 항 | 결 산 액         | 산 출 근 거                                                                                                  |
|     |   |               | 6)편집위원 회의비 (1/29, 5/26, 8/5, 9/29) 4회 643,000<br>7)인터뷰 원고료 400,000                                       |
| 축쇄판 |   | 18,104,200    | 1)회보 축쇄판 제작비(잔금) 15,000,000<br>2)회보 축쇄판 교정 수고료 (편집주간, 여직원2) 1,500,000<br>3)회보 축쇄판 운송비 및 택배 발송비 1,604,200 |
| 기타  |   | 2,029,920     | 1)회보 발송업체 변경으로 기존업체 재고 인수 비용 330,000<br>2)여직원 퇴직적립금 1,699,920                                            |
| 이월금 |   | 21,654,899    | 1)은행 보통예금 (축쇄판 계좌 잔액 회보계좌로 전액 이체 포함) 21,654,899                                                          |

2020년 야구후원회 운영 결산서

수입부문(2020 후원회) (2020. 1. 1~2020. 12. 31)

| 과 목 |       | 2020년 결 산 규 모 |                                                    |
|-----|-------|---------------|----------------------------------------------------|
| 관   | 항     | 결 산 액         | 산 출 근 거                                            |
| 합계  |       | 37,376,911    |                                                    |
| 이월금 |       | 13,075,114    |                                                    |
|     |       | 13,075,114    | 1)은행 보통예금 8,567,096<br>2)기별야구대회(미개최) 이월금 4,508,018 |
| 후원금 |       | 24,300,000    |                                                    |
|     | 기별후원금 | 24,300,000    | 1)2020년도(35개 동기회) 24,300,000                       |
| 기타  |       | 1,797         | 1)은행 보통예금 이자 1,797                                 |

지출부문(2020 후원회) (2020. 1. 1~2020. 12. 31)

| 과 목   |   | 2020년 결 산 규 모 |                                                                    |
|-------|---|---------------|--------------------------------------------------------------------|
| 관     | 항 | 결 산 액         | 산 출 근 거                                                            |
| 합계    |   | 37,376,911    |                                                                    |
| 지원비   |   | 4,000,000     |                                                                    |
|       |   | 4,000,000     | 1)경남고 대통령배야구대회 출전 격려금 2,000,000<br>2)경남고 봉황대기야구대회 출전 격려금 2,000,000 |
| 우승축하금 |   | 1,000,000     |                                                                    |
|       |   |               | 1)경남고 명문고 야구열전 우승 축하금 1,000,000                                    |
| 훈련비   |   | 20,000,000    |                                                                    |
|       |   | 20,000,000    | 1)경남고 동계훈련비 지원금 15,000,000<br>2)경남중 동계훈련비 지원금 5,000,000            |
| 이월금   |   | 12,376,911    | 1)은행 보통예금 12,376,911                                               |

2020년 제22회 용마골프대회 운영 결산서

수입부문(2020 용마골프) (2020. 1. 1~2020. 12. 31)

| 과 목 |   | 2020년 결 산 규 모 |                                                                                                                                                                                                                                              |
|-----|---|---------------|----------------------------------------------------------------------------------------------------------------------------------------------------------------------------------------------------------------------------------------------|
| 관   | 항 | 결 산 액         | 산 출 근 거                                                                                                                                                                                                                                      |
| 합계  |   | 34,263,532    |                                                                                                                                                                                                                                              |
| 이월금 |   | 5,682,068     | 1)은행예금 5,682,068                                                                                                                                                                                                                             |
| 참가비 |   | 5,280,000     | 1)참가비((40,000원×132명) 5,280,000                                                                                                                                                                                                               |
| 협찬금 |   | 21,800,000    | 1)회장단 협찬금(상세 내역 협찬금 리스트 참조) 17,800,000<br>①회장 2,000,000<br>②고문(1명) 1,000,000<br>③자문위원(2명) 1,000,000<br>(50만원×2명)<br>④부회장단(운영위,집행위,일반위) 16명 13,800,000<br>(300만원×1명, 100만원×7명, 50만원×7명, 30만원×1명)<br>2)동문 협찬금 4,000,000<br>(100만원×1명, 50만원×6명) |
| 특찬금 |   | 1,500,000     | 1)특별 찬조금 1,500,000<br>①사무국 1,500,000                                                                                                                                                                                                         |
| 기타  |   | 1,464         | 1)은행 예금이자 1,464                                                                                                                                                                                                                              |

지출부문(2020 용마골프) (2020. 1. 1~2020. 12. 31)

| 과 목   |   | 2020년 결 산 규 모 |                                                                                           |
|-------|---|---------------|-------------------------------------------------------------------------------------------|
| 관     | 항 | 결 산 액         | 산 출 근 거                                                                                   |
| 합계    |   | 34,263,532    |                                                                                           |
| 단합회식비 |   | 5,640,000     | 1)코로나19로 저녁행사 취소되어 참가비 반환 5,280,000<br>2)떡 구입비(스타자동차 협찬 감사) 360,000                       |
| 참가상   |   | 10,400,000    | 1)출전 선수 기념품비 10,400,000<br>(KN모자@15,000X160개=2,400,000)<br>(휴롬티마스터@50,000X160개=8,000,000) |
| 포상비   |   | 1,694,000     | 1)트로피 제작비 770,000<br>2)골프공(브리지스톤 타이거우즈@42,000x22더즌) 924,000                               |
| 홍보비   |   | 178,800       | 1)문구 및 소모품비 28,800<br>2)문자 발송비 50,000<br>3)팸플릿 (초기 디자인비용) 100,000                         |
| 운영비   |   | 1,873,020     | 1)대회 운영경비 (회의 및 행사요원 식대) 323,020<br>2)업무추진비 150,000<br>3)카트비 지원 1,400,000                 |
| 이월금   |   | 14,477,712    | 1)은행예금 14,477,712                                                                         |

2021년 사무국 운영 예산서

|    |                     |                                         |             |
|----|---------------------|-----------------------------------------|-------------|
| 수입 | 전년이월 회비계            |                                         | 29,915,237  |
|    | 임원회비                |                                         | 162,000,000 |
|    | 기별분담금               |                                         | 122,000,000 |
|    | 계                   |                                         | 40,000,000  |
| 지출 | 모교지원금 (경고600+경중500) |                                         | 11,000,000  |
|    | 조직강화비계              |                                         | 45,300,000  |
|    | 사무국 주관              | 분과위원장 모임(년 2회)                          | 1,500,000   |
|    | 회의비                 | 고문, 자문, 부회장단 회의(년 2회)                   | 1,500,000   |
|    |                     | 운영위원 모임(년 2회)                           | 1,000,000   |
|    |                     | 동기회장, 직능, 동호 회장 및 국장 회의(년 2회)           | 4,000,000   |
|    | 행사지원비               | 정기총회(코모도)                               | 4,000,000   |
|    |                     | 경미회 격려 지원비 연 2회 500,000                 | 1,000,000   |
|    |                     | 8개 지구 격려 지원비(기장 지구 제외) 연 2회 300,000     | 4,800,000   |
|    |                     | 작능&동호회 지원(10개) 연 1회 300,000             | 3,000,000   |
|    |                     | 5개 지역동창회 지원금(거제, 김해, 양산, 울산, 창원) 각 50만원 | 2,500,000   |
|    |                     | 동기회 지원(선착순 초대 5개 기수) 연 1회 300,000       | 1,500,000   |
|    |                     | 5, 15, 25, 35, 45, 55회 홈커밍데이 지원 500,000 | 3,000,000   |
|    |                     | 55회/56회 창립 지원 500,000                   | 1,000,000   |
|    |                     | 용마의 밤 행사 지원비                            | 4,000,000   |
|    |                     | 기별야구대회 지원비                              | 2,000,000   |
|    |                     | 용마골프대회 지원비                              | 1,500,000   |
|    |                     | 용마당구대회 지원                               | 1,000,000   |
|    |                     | 용마바둑대회 지원                               | 1,000,000   |
|    |                     | 용마바둑 고교대항대회 출전비 보조금 최대4회 500,000        | 2,000,000   |
|    |                     | 용마코스 지원비                                | 1,000,000   |
|    | 홍보비                 |                                         | 1,000,000   |
|    | 경조 화환비              |                                         | 2,000,000   |
|    | 교통비                 |                                         | 1,000,000   |
|    | 일반관리비계              |                                         | 106,670,050 |
|    |                     | 장학재단 임대료 월 150만원x12개월 5층과 6층            | 18,000,000  |

|    |                  |             |
|----|------------------|-------------|
| 지출 | 인건비(사무국장+여직원 1명) | 58,606,200  |
|    | 퇴직적립금            | 4,883,850   |
|    | 복리후생비            | 1,200,000   |
|    | 사무국 업무추진비        | 3,600,000   |
|    | 사무총장 교통비 및 판공비   | 2,400,000   |
|    | 통신, 우편료          | 2,500,000   |
|    | 인쇄도서비            | 200,000     |
|    | 사무실 관리비          | 9,000,000   |
|    | 사무실 소모품비         | 2,500,000   |
|    | 공과금              | 1,500,000   |
|    | 접대 소모품비(커피 외)    | 2,000,000   |
|    | 컴퓨터운영비           | 180,000     |
|    | 기타잡비             | 100,000     |
|    | 예비비              | 28,945,187  |
|    | 계                | 191,915,237 |

2021년 동창회보 운영 예산서

|    |                            |             |
|----|----------------------------|-------------|
| 수입 | 전년이월 회보비(3,100명)           | 21,654,899  |
|    | 광고비                        | 93,000,000  |
|    | 계                          | 15,000,000  |
| 지출 | 회보제작 및 발송비                 | 129,654,899 |
|    | 운영비계                       | 51,000,000  |
|    | 회보담당 여직원 급여                | 52,070,000  |
|    | 퇴직금적립                      | 21,480,000  |
|    | 기획, 편집주간                   | 1,790,000   |
|    | 기획,편집 주간 성과급(증면발행시) 50만x6회 | 24,000,000  |
|    | 편집위원회의비                    | 3,000,000   |
|    | 출장, 교통비                    | 800,000     |
|    |                            | 1,000,000   |
|    | 이월 및 예비비                   | 1,000,000   |
|    | 계                          | 26,584,899  |
|    |                            | 129,654,899 |

동창회보 축쇄판 4집 발간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역사 외을거리를 판매합니다.  
2003년의 제3집 이후 17년 만에 무려 1200페이지의 축쇄판 제4집(회보 301호부터 400호까지 수록)을 발간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총동창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51-253-7788  
FAX : 051-255-7787  
E-mail : yongma2007@hanmail.net

각종 계정 입금 계좌 변경

김대욱(29회) 제38대 총동창회장이 지난 1월 29일 취임함에 따라 총동창회의 각종 계정의 은행예금 계좌가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예금주는 '경남중고총동창회 김대욱'입니다.

▲임원 연회비 및 기별분담금 입금 계좌 (부산은행) 101-2074-0331-09  
▲기별야구후원금 입금 계좌 (부산은행) 101-2074-0336-01  
▲회보구독료 입금 계좌 (부산은행) 101-2074-0332-05



# 회 칙 (수정후)

이번 충동창회장 선출 소동으로 회칙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지난 1월 23일 실시한 비대면 제58차 정기 이사회 및 총회에 서 개정된 회칙 전문을 수록한다. 문제의 제20조 11항은 삭제되었다.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경남중고등학교충동창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8(부평동4가) 소재 충동창회관내에 둔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2. 동창회보, 동창회 회원명부, 동창회보 축쇄판 등 동창회와 관련한 출판사업.
  3. 모교 교육환경 확충, 장학증진 활성화, 모교 변천사 편찬 등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장학 사업을 위해 재단법인 (재)용마장학회를 둔다. 동창회관의 재정적 운용은 용마장학회에서 관장한다.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제 2 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원은 경남중학교(토성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자와 재학 중 전학한자
  2. 동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타고출신도 당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동창회보 구독료 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제7조 (회원의 자격 상실)**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질서를 문란케한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 시킬 수 있다.

## 제 3 장 기 구

- 제8조 (기구)** 본회에 사무국과 (재)용마장학회를 둔다. 운영은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를 통한다.
- 제9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회장의 선출 및 승인.
  4. 회무 집행의 감독.
  5. 기타 이사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한 승인
- 제10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중순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에서 소집을 의결할 때.
    - (3) 회원 100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11조 (총회의 결의)** 총회의 결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써 한다.
- 제1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상임·기획·총무·재정·체육·조직·홍보·사업

- 문화·대외협력·봉사·법률자문·해외·정책·보건·직능·의료·지역·IT·야구·동호 등 필요한 부문별 담당부회장을 두고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심의.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3. 고문(상임고문)과 명예회장의 추대.
  4. 사무총장 임명 동의
  5. 동창회관장 임명 동의. (재)용마장학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
  6.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용마장학회 이사 및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 (재)용마장학회에서 선임
  8. 회원의 자격 상실에 대한 심의 및 의결
  9.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동창회 재산처분 사항 의결

###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1. 당연직 이사 : 고문, 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동기회 회장, 동창회관장
2. 이사회에서 인준 받은 지역, 지구, 직능, 동호동창회의 각 대표

###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1.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 행사 때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수시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15조 (이사회의 결의)

1.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의 회원 1명을 지명하고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사무국)

1.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와 경리 사무를 관장한다.
2.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17조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모임 개최)

1. 집행위원회 구성은 10명 이상의 부회장으로 한다.
2. 집행위원회 모임은 회장(또는 수석부회장)이 주관해서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제18조 (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토의 결의하여 추후 정기(또는 임시) 이사회에 보고 후 추진을 받는다.

1. 회 운영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동창회보와 회원명부 발간에 관한 사항.
3. 지역과 직능 동창회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5. 기금 수금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모교의 지원에 대해 (재)용마장학회와 상의.

## 제 4 장 임 원

- 제19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 명(상임고문 포함)
  2. 명예회장 : 1명
  3. 회장 : 1명
  4. 자문위원(위원장 포함) : 약간 명
  5. 수석부회장 : 1명 또는 2명(1수석과 2수석)
  6. 부회장 : 30명 이상으로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일반위원회 소속으로 나눈다.
  7. 집행위부회장: 약간 명 (부회장 중 실무적으로 상시 회장을 보좌하는 부문별 위원으로 호칭은 예를 들어 기획담당부회장으로 칭한다).
  8. 운영위원회: 약간 명 (회장과 같은 기수의 동기생)
  9. 이사 : 회칙 제3장 제13조에 의한 임원을 말한다.
  10. 감사 : 약간 명
  11. 동창회관장: 1명

### 제2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고문(상임고문 포함)과 명예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 2수석부회장은 차차기회장 후보가 된다.
4.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같은 기수에서 회장을 2명 배출할 수 있다.
6.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8. 무급의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9. 유급의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년이 지나면 후임국장을 선임하고 1년은 같이 근무를 한다. 단, 연봉은 7:3(현임:후임)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10. 무급의 동창회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1조 (임원의 직무)

1. 고문(상임고문 포함)과 명예회장, 자문위원은 회무집행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또는 1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회무집행과 경리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평상시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수시 기부 명칭 부여자 협찬 기여도 통계

협찬금은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통계에 넣습니다.

2021년 1월 28일 작성

| 다이아몬드 |    |        |  | 5억원이상    | 0명  | 2021년<br>협찬 |
|-------|----|--------|--|----------|-----|-------------|
| No    | 기수 | 이름     |  | 금액       |     |             |
| 1     |    |        |  |          |     |             |
| 루비    |    |        |  | 3억원이상    | 0명  | 2021년<br>협찬 |
| No    | 기수 | 이름     |  | 금액       |     |             |
| 1     |    |        |  |          |     |             |
| 사파이어  |    |        |  | 2억원이상    | 0명  | 2021년<br>협찬 |
| No    | 기수 | 이름     |  | 금액       |     |             |
| 1     |    |        |  |          |     |             |
| 에메랄드  |    |        |  | 1억원이상    | 5명  | 2021년<br>협찬 |
| No    | 기수 | 이름     |  | 금액       |     |             |
| 1     | 11 | 오 완 수  |  | 1억원      |     |             |
| 2     | 23 | 김 영 기  |  | 1억2300만원 |     |             |
| 3     | 25 | 박 중 찬  |  | 1억4000만원 |     |             |
| 4     | 30 | 최 우 철  |  | 1억700만원  |     |             |
| 5     | 33 | 박 명 진  |  | 1억300만원  |     |             |
| 플라티넘  |    |        |  | 5천만원이상   | 13명 | 2021년<br>협찬 |
| No    | 기수 | 이름     |  | 금액       |     |             |
| 1     | 13 | 이 경 재  |  | 5100만원   |     |             |
| 2     | 16 | 송 규 정  |  | 5400만원   |     |             |
| 3     | 17 | 최 만 식  |  | 5000만원   |     |             |
| 4     | 18 | 김 길 제  |  | 5200만원   |     |             |
| 5     | 19 | 이 부 성  |  | 5000만원   |     |             |
| 6     | 22 | 유 재 진  |  | 6400만원   |     |             |
| 7     | 24 | 박 홍 규  |  | 5000만원   |     |             |
| 8     | 25 | 김 진 철  |  | 6400만원   |     |             |
| 9     | 26 | 박 상 호  |  | 5050만원   |     |             |
| 10    | 29 | 김 대 욱  |  | 6900만원   |     |             |
| 11    | 30 | 윤 성 덕  |  | 6350만원   |     |             |
| 12    | 37 | 허 부 남  |  | 5400만원   |     |             |
| 13    | 38 | 권 두 성  |  | 7200만원   |     |             |
| 골드    |    |        |  | 3천만원이상   | 22명 | 2021년<br>협찬 |
| No    | 기수 | 이름     |  | 금액       |     |             |
| 1     | 9  | 조동훈(미) |  | 3056만원   |     |             |
| 2     | 15 | 김 경 일  |  | 4000만원   |     |             |
| 3     | 16 | 엄 중 원  |  | 3000만원   |     |             |
| 4     | 19 | 이 용 흥  |  | 4150만원   |     |             |
| 5     | 20 | 박 용 덕  |  | 3100만원   |     |             |
| 6     | 21 | 손석보(미) |  | 3064만원   |     |             |
| 7     | 23 | 김 중 광  |  | 3100만원   |     |             |
| 8     | 25 | 서 병 수  |  | 3000만원   |     |             |
| 9     | 27 | 박 치 호  |  | 4000만원   |     |             |
| 10    | 28 | 백 영 호  |  | 3200만원   |     |             |
| 11    | 29 | 박 성 철  |  | 3500만원   |     |             |
| 12    | 30 | 김 현 태  |  | 3250만원   |     |             |
| 13    | 31 | 박 중 호  |  | 3350만원   |     |             |
| 14    | 31 | 홍 성 수  |  | 3320만원   |     |             |
| 15    | 33 | 김 법 영  |  | 4250만원   |     |             |
| 16    | 35 | 장 인 화  |  | 3300만원   |     |             |
| 17    | 36 | 박 진 용  |  | 3150만원   |     |             |
| 18    | 38 | 정 재 형  |  | 3050만원   |     |             |
| 19    | 39 | 박 근 태  |  | 3140만원   |     |             |
| 20    | 40 | 우 영 환  |  | 3500만원   |     |             |
| 21    | 44 | 탁 정 환  |  | 3400만원   |     |             |
| 22    | 47 | 정 신    |  | 3210만원   |     |             |
| 실버    |    |        |  | 1천만원이상   | 24명 | 2021년<br>협찬 |
| No    | 기수 | 이름     |  | 금액       |     |             |
| 1     | 3  | 송 두 호  |  | 1000만원   |     |             |
| 2     | 8  | 박 동 렬  |  | 1000만원   |     |             |
| 3     | 10 | 조 양 제  |  | 1000만원   |     |             |
| 4     | 12 | 남 기 용  |  | 1000만원   |     |             |
| 5     | 15 | 손 부 흥  |  | 1500만원   |     |             |
| 6     | 15 | 천 신 일  |  | 2430만원   |     |             |
| 실버    |    |        |  | 1천만원이상   | 24명 | 2021년<br>협찬 |
| No    | 기수 | 이름     |  | 금액       |     |             |
| 7     | 15 | 한 해 수  |  | 1000만원   |     |             |
| 8     | 17 | 이 세 복  |  | 1000만원   |     |             |
| 9     | 17 | 최 성 호  |  | 1000만원   |     |             |
| 10    | 19 | 황 태 원  |  | 1000만원   |     |             |
| 11    | 20 | 김 형 오  |  | 1000만원   |     |             |
| 12    | 20 | 허 규 판  |  | 1000만원   |     |             |
| 13    | 21 | 강 창 수  |  | 1700만원   |     |             |
| 14    | 21 | 전 재 호  |  | 1000만원   |     |             |
| 15    | 22 | 김 학 균  |  | 1000만원   |     |             |
| 16    | 22 | 박 재 상  |  | 2000만원   |     |             |
| 17    | 22 | 장 성 덕  |  | 1000만원   |     |             |
| 18    | 22 | 장 성 복  |  | 1000만원   |     |             |
| 19    | 22 | 허 범 도  |  | 1000만원   |     |             |
| 20    | 28 | 노 영 현  |  | 1400만원   |     |             |
| 21    | 30 | 정 경 목  |  | 1000만원   |     |             |
| 22    | 33 | 이 순 환  |  | 1000만원   |     |             |
| 23    | 33 | 최 웅 남  |  | 1300만원   |     |             |
| 24    | 34 | 이 진 호  |  | 1250만원   |     |             |
| 브론즈   |    |        |  | 5백만원이상   | 41명 | 2021년<br>협찬 |
| No    | 기수 | 이름     |  | 금액       |     |             |
| 1     | 8  | 김 봉 길  |  | 500만원    |     |             |
| 2     | 17 | 김 동 수  |  | 500만원    |     |             |
| 3     | 17 | 윤 성 욱  |  | 500만원    |     |             |
| 4     | 17 | 조 증 연  |  | 500만원    |     |             |
| 5     | 19 | 김 봉 호  |  | 600만원    |     |             |
| 6     | 19 | 장 홍 의  |  | 600만원    |     |             |
| 7     | 20 | 김 태 영  |  | 500만원    |     |             |
| 8     | 20 | 박 병 철  |  | 500만원    |     |             |
| 9     | 23 | 이 상 수  |  | 500만원    |     |             |
| 10    | 25 | 김 익 수  |  | 700만원    |     |             |
| 브론즈   |    |        |  | 5백만원이상   | 41명 | 2021년<br>협찬 |
| No    | 기수 | 이름     |  | 금액       |     |             |
| 11    | 25 | 박 세 철  |  | 530만원    |     |             |
| 12    | 25 | 손 기 천  |  | 550만원    |     |             |
| 13    | 25 | 송 정 규  |  | 550만원    |     |             |
| 14    | 25 | 이 명 철  |  | 710만원    |     |             |
| 15    | 26 | 김 상 현  |  | 500만원    |     |             |
| 16    | 26 | 박 재 욱  |  | 500만원    |     |             |
| 17    | 26 | 박 호 대  |  | 500만원    |     |             |
| 18    | 26 | 하 원 규  |  | 500만원    |     |             |
| 19    | 27 | 김 태 우  |  | 550만원    |     |             |
| 20    | 27 | 문 두 찬  |  | 600만원    |     |             |
| 21    | 28 | 구 영 소  |  | 500만원    |     |             |
| 22    | 28 | 이 원 철  |  | 900만원    |     |             |
| 23    | 28 | 최 강 호  |  | 500만원    |     |             |
| 24    | 29 | 이 석 조  |  | 600만원    |     |             |
| 25    | 30 | 김 해 곤  |  | 700만원    |     |             |
| 26    | 30 | 윤 인 태  |  | 610만원    |     |             |
| 27    | 30 | 이 명 건  |  | 530만원    |     |             |
| 28    | 30 | 이 학 수  |  | 700만원    |     |             |
| 29    | 30 | 허정택(미) |  | 615만원    |     |             |
| 30    | 31 | 남 기 태  |  | 700만원    |     |             |
| 31    | 31 | 류 명 석  |  | 660만원    |     |             |
| 32    | 31 | 오 민 일  |  | 600만원    |     |             |
| 33    | 31 | 이 병 태  |  | 600만원    |     |             |
| 34    | 31 | 정 철 수  |  | 500만원    |     |             |
| 35    | 32 | 이 중 휘  |  | 710만원    |     |             |
| 36    | 34 | 박 철 웅  |  | 500만원    |     |             |
| 37    | 34 | 이 재 완  |  | 550만원    |     |             |
| 38    | 39 | 백 기 현  |  | 810만원    |     |             |
| 39    | 41 | 이 양 결  |  | 800만원    |     |             |
| 40    | 44 | 안 병 규  |  | 600만원    |     |             |
| 41    | 64 | 표 중 빈  |  | 500만원    |     |             |

“덕형관 원형복원 사업비 대폭 축소”

문화재청, 설계 부실·문화재와 무관한 시설 지적

**36억원 신청→5억원 반영 통보**

경남고 덕형관 원형복원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설계용역작업이 완료돼 납품된 가운데, 문화재청이 설계보완과 사업비 축소를 경남고에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보완 내용은 총동창회 자문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문화재청의 현장실사 결과는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만 크게 부풀렸다’라고 한 줄로 요약된다.

문화재청의 지적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은 덕형관 원형복원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내진 구조보강을 주목적으

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에는 균열, 보수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상세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보수·보강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부실 설계 상태라는 것이다.

또 종합정비계획서에 다루어야 할 사항과 실제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도 내용을 구분하지 않은 채 종합정비계획 사안을 실시설계도에 뒤죽박죽 혼용시킨 상태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1층 마당 정비, 기단부 보완’ 같은 사안은 현장의 시설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원형복원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검토한 후에 실시설계도에 반

영하여야 함에도 상세한 설계도가 되지 못한 부실 상태라고 주장했다.

예산 측면에서도 문화재 원형복원과 무관한 실내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에어컨 시설, 천정 석면교체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조만간 사업비 36억원 신청한 것을 배제시키고, 5억원원 정도로 대폭 축소시킬 예정인 것을 알려졌다.

경남고는 용역업체 다올에 설계 보완을 요청했으나, 실행여부는 미지수이다. 만약 문화재청의 통보가 이대로

©2020년 9월 24일~2021년 1월 28일  
기부금 보내주신 동문 명단

| 번호 | 기수 | 성명        | 금액         |
|----|----|-----------|------------|
| 1  | 5  | 진도영       | 500,000    |
| 2  | 17 | 장호남       | 1,700,000  |
| 3  | 24 | 강동우       | 500,000    |
| 4  | 25 | 손기천       | 3,000,000  |
| 5  | 27 | 김태우       | 500,000    |
| 6  | 30 | 김현태       | 20,000,000 |
| 7  | 33 | 김기산       | 100,000    |
| 8  | 37 | 석영태       | 100,000    |
| 9  | 54 | 염태환       | 100,000    |
| 10 | 78 | 홍경민 (경남중) | 100,000    |
| 11 | 79 | 김민규 (경남중) | 100,000    |
| 12 | 79 | 박준혁 (경남중) | 100,000    |

현실화 된다면, 덕형관의 원형복원사업은 변죽만 울린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하나마나 한 사업이 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기사 10면에서 받음>

제5장 동기회, 지역·지구 및 직능·동호동창회

**제22조(동기회)** 회원은 졸업 연도별로 동기회를 결성하여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기회 회장은 회무 현황을 수시로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역과 지구, 직능과 동호동창회)**

- 회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동창회를, 종사 직능에 따라 직능동창회, 취미에 따라 동호동창회를 결성할 수 있다. 부산과 서울에는 지구동창회를 둘 수 있고, 지구동창회 산하의 소지역에는 지회동창회를 둘 수 있다.
- 지역과 지구, 직능과 동호동창회 대표는 사무국에 등록하고, 회무현황을 수시로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24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동창회보 발행재정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9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차 개정 2007년 3월 28일

- 2차 개정 2008년 6월 25일
- 3차 개정 2010년 3월 16일
- 4차 개정 2011년 3월 29일
- 5차 개정 2012년 3월 21일
- 6차 개정 2016년 3월 7일
- 7차 개정 2017년 3월 9일
- 8차 개정 2018년 3월 7일
- 9차 개정 2019년 3월 6일
- 10차 개정 2020년 3월 25일
- 11차 개정 2020년 7월 7일
- 12차 개정 2020년 10월 28일
- 13차 개정 2021년 1월 23일



## 2020년 용마의 밤 행사

## ‘총동창회관 개관’ 숙원 달성 자축과 감사의 밤



2020년 용마의 밤 행사가 49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하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거행됐다. &lt;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gt;

용마대상 비롯, 각종 수상 봇물…‘성과 컸다’는 의미 반영  
개회 선언 진도영(5회) 동문, 80년사 지원비 50만원 기탁

## 49명 참가, 정숙한 분위기 진행

2020년 용마의 밤 행사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렸다. 코로나19의 기승으로 50명 미만의 소수 인원만 참석이 가능한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열린 소중한 송년잔치였다. 수백명 수용이 가능한 공간에 대형테이블 10개에 49명이 나뉘어 앉아 ‘거리두기’를 하면서 행사를 치렀다. 예전의 행사에서 보았던 왁자지껄한 축제의 감동과 흥분감 대신 차분하면서 정숙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행사는 원래 12월 3일 개최 예정이었다가 방역단계 상승으로 15일로 연기된 것이었다. 참석인원도 처음 300명에서 200명으로, 다시 100명, 50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행사 개최 취소도 고려됐으나 ‘미니 용마의 밤’ 행사라도 치러 박종찬(25회) 제36·37대 경남중고 총동창회장의 재임 3년의 성과를 결산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갖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1부 행사〉 교기 및 동창회기 입장에 이어 진도영(5회) 동문이 단상에 올라 개회를 선언했다. 진 동문은 이 자리서 “100년, 200년을 바라보면서 용마의 발전을 위해 동문들이 서로 협조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모든 동문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했다. 진 동문은 이날 모교 80년사 편찬 지원비로 써달라며 50만원을 기탁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49명이 참석한 초미니 용마의 밤이라 아쉬운 점도 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어 행운이다. 동문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총동창회관 개관을 1,700여명의 동문이 힘을 합쳐 이뤄냈다. 걸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초석을 다져준 동문과 단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시상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

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이날 행사가 ‘새로운 역사’를 쓰는 자리라며, 영하의 날씨와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참석한 동문들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 정행권(9회) 고문이 퇴임을 앞둔 박 총동창회장에 대한 감사와 경의의 뜻을 담은 꽃다발을 아들인 정운성(35회) 동문을 통해 전달했다. 정 고문은 ‘50년 세월을 총동창회와 관계했는데 박 총동창회장의 열정과 헌신은 정말 대단했다’는 극찬을 전해왔다.

이날 이용흙(19회) 용마장학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넓고 아름다운 홀에 49명의 동문만 참석해 대단히 특이한 경우이다. 기별 대표인만큼 오늘 행사를 널리 알려 달라. 동문이란 인연을 잘 가꿔 꽃을 피우길 바란다. 희생과 봉사를 많이 하는데 비례해 복을 받는다. 동창회 일 많이 하는 동문들이 더 많은 복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덧붙여서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발전기금을 합쳐 100억원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했으면 지금 얼마나 큰 자산이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용마대상 시상식에서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 겸 자문위원장이 박 총동창회장으로부터 상패와 금 1냥(30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부상을 수상했다. 16번째 용마대상 수상자이다. 직전(2017년) 용마대상 수상자인 김영기(23회) 동문이 꽃다발을 증정했다.

남 용마대상 수상자는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 큰 기여나 공을 세운 동문에게 주는 큰 상을 받는 것이 송구하고 미안하다. 동창회 지킴이 역할을 오랜 세월 한데 대한 보답이라 생각한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기분 좋다.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수지구동창회 리더십상과 우수직능단체 리더십상 수여, 동창회관 리모델링공사 공로패와 동창회관



남진현(19회·오른쪽) 총동창회관장이 용마대상을 수여받고 펼쳐 보이고 있다.

물품 기부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다(수상자 명단은 동창회보 제432호 2면 게재). 계속해서 등급별 기부자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다. 대상자는 500만원 이상 기부한 동문 등 모두 107명이다. 이날 에메랄드급(1억원 이상)은 김영기(23회) 박종찬(25회), 플래티넘급(5천만원 이상)은 박상호(26회) 김대욱(29회), 골드급(3천만원 이상)은 이용흙(19회) 박성철(29회) 김현태(30회) 김법영(33회) 박진용(36회) 박근태(39회), 브론즈급(500만원 이상)은 류명석(31회), 이양걸(41회) 동문 등이 수상자로 참석했다. 이날 함께 치르기로 했던 제22회 총동창회장기 용마골프대회 시상식은 참가자 수 제한으로 취소했다(수상자 명단 동창회보 제431호 6면 게재). 각종 수상 대상자 중 행사 불참자(대리 참석자는 제외)의 패와 트로피 등은 자택으로 배송됐다. 시상식을 마치고 도시락 식사로 만찬을 대신했다.

한편 1부 행사 참석자 소개 후 총동창회서 제작한 마스크걸이 배포와 착용 세레머니를 가졌다. 김태호(38회) 동문이 단상에 올라가 시연을 하기도 했다.

서병수(25회·국회의원) 운영위원이 축전을, 김정암(29회) 창원지역동창회장과 서정곤 부산롯데호텔 사장이 축하 화환을 보내왔다.

〈2부 행사〉 이날의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은 새해 1월 중순의 정기 이사회 및 총회 때의 행사를 미리 당겨서 치른 것이었다. 하지만 1수석부회장의 정기 이사회 불신임 투표 결과로 의미가 없어졌다.

케이크커팅에는 박종찬 총동창회장, 박성철 1수석부회장, 김대욱(29회) 2수



2020년 용마의 밤 행사 축하 케이크 자르는 모습.

석부회장, 진도영 동문, 이용흙 용마장학회 이사장, 남진현 총동창회관장, 이옥한(55회) 동문(참가자 중 막내 기수)이 함께했다.

건배제의 순서에서 박 총동창회장은 “용마의 밤 행사를 치르게 돼 홀가분해졌다”면서 “위하여!”를 외쳤다. 교가 제창을 끝으로 이날 행사는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 사회를 맡은 박종기(28회) 동문은 매끄러운 진행으로 찬사를 받았다. 이날 55회 동기생 박기흥 이옥한 장지훈 정보영 동문이 자원봉사 진행요원으로 참석했다. 총동창회는 참석자들에게 켈린더, 타월, 마스크 및 마스크걸이 등 기념품을 전달했다.

◇참석자(기수·가나다 순)=진도영(5회) 남진현 이용흙(이상 19회) 김영기 이병찬 이상운(이상 23회) 박종찬 옥동훈(이상 25회) 박상호 이영학(26회) 박종기(28회) 김대욱 김종명 박성철 안청홍 차의수(이상 29회) 김현태(30회) 류명석(31회) 김법영 이윤조(33회) 조시형(34회) 정운성(35회) 김정현 박진용 박철중 정윤희(36회) 김태호 이수관(이상 38회) 박근태 박종국 윤원욱(39회) 이양걸 전삼록 추교영(이상 41회) 이승철(44회) 권우일 김상수 손창오(이상 45회) 김백권(46회) 배준수(47회) 김정현 백광선(이상 50회) 황종민(53회) 박기흥 이옥한 장지훈 정보영(이상 55회) 동문 외 사무국 직원 2명.



헌신과 봉사로 쌓은 '탑', 용마 역사에 길이 빛나리!



2020년 용마의 밤 행사를 마치고 참가 동문 전원이 단상에 올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리더십·공로패·감사패 수상자



우수지구동창회 리더십상 수상.



우수직능단체 리더십상 수상.



동창회관 리모델링 공사 감사패 수상.



동창회관 물품 기부 감사패 수상.

등급별 기부자 감사패 수상자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에메랄드급(1억원 이상) 기부 수상자.



플라티넘급(5천만원 이상) 기부 수상자.



골드급(3천만원 이상) 기부 수상자.



브론즈급(500만원 이상) 기부 수상자.



## 지역·지구 동창회



해운대지구동창회 송년회를 마친 참가 동문들이 행사 장소 계단에 도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 참석자 전원, 자랑스러운 용마메달 걸다

**해운대지구 송년회...기여자에 태극용마대훈장 수여  
“코로나19 견뎌낸 동문들에게 용기와 희망 안겨”**

“참 극적이었다. 참가자 전원의 목에 용마메달을 걸어준다는 멋진 기획이 코로나19로 빛을 잃을까 조마조마 했는데 행사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 주최측의 동문사랑 의지 덕분이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50인 미만 모임 행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해운대지구동창회 송년회가 해운대 외식1번가에서 열렸다. 행사 개최 직전 새 방역강화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자정부터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됐다. 다행이었다. 해운대지구동창회 집행부와 총동창회 측과의 일정 조율이 결과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되었다는 것이다.

해운대지구 집행부는 이날 그동안 기부금 기탁 등 해운대지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문에게 자체 제작한 ‘태극용마대훈장’을 수여했다. 해를 넘기면서 감사의 징표로서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이날 참가자 전원에게는 ‘용마메달’을 증정했다. 동문회 모임 참가

그 자체로서 모교와 동문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의미를 메달에 담았다. 뜻하지 않은 훈장과 메달을 받은 동문들은 그저 기분 좋고, 유쾌한 이벤트에 만족했다. 이번 기획은 김태호(38회) 해운대지구 사무국장의 아이디어로 나왔다.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행사 개최여부를 많이 고심했다. 다행히 방역강화 조치 전날이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보고 싶은 얼굴들을 만나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려 참가한 선후배 동문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훈장과 메달 증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25회)은 격려사에서 “이번 행사 날짜를 일찍이 잡았는데 오늘까지만 가능해서 묘하다는 느낌이다. 직장이 센텀에 있어 해운대지구 소속도 된다. 내년부터 회원으로 참석하겠다. 임기동안 신세를 많이 졌는데 회관 보유로 보답하게 되었다. 좋은 결과에 감사드린다. 동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고 선후배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보람차다”고 말했다. 이 자리서 박 총동창회장은 해운대지구동창회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이날 모임의 최연장자인 배대결(13회) 동문은 우렁찬 목소리로 참석자 모두를 기립시켜 그동안 총동창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해온 박 총동창회장에게 감사의 단체인사를 하게 했다. 그야말로 동문 전체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과 같은 의미 있는 퍼포먼스였다.

이날 태극용마대훈장 수상자는 박 총동창회장,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 삼사공사 원로동문(배대결 윤기갑 김화옥 김인구), 이강석(14회), 송정규(불참) 동문, 옥동훈(이상 25회) 사무총장, 박종기(28회), 이호인(33회) 동문 등이다.

이날 정 해운대지구 회장은 차기 회장 내정자를 발표했다. 박상현(37회·검

해운대지구동창회가 자체 제작한 ‘태극용마대훈장’을 수상한 동문들. ①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왼쪽)과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②해운대지구 삼사공사 회원들. 왼쪽부터 배대결 윤기갑(이상 13회) 김화옥(14회) 김인구(24회) 동문. ③이강석(14회) 동문과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동창회장(이하 같음). ④옥동훈(25회) 사무총장. ⑤박종기(28회) 동기회장. ⑥이호인(33회) 동문.

찰청 수사관) 동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새해 적당한 시기에 이·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이날 격려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수건 50장을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찬조(호칭 생략)=삼사공사 25만원, 이강석(14회) 20만원, 강부덕(20회) 20만원, 전상대(23회) 5만원, 송정규(25회) 20만원, 박종기(28회) 10만원, 이호인(33회) 20만원, 박진용(36회) 10만원, 남부산지구동창회 10만원, 동래금정지구동창회 10만원.

◇참석자(기수·가나다 순·35명)=배대결 윤기갑(이상 13회) 김화옥 이강석(이상 14회) 남진현(19회) 강부덕(20회) 김인구(24회) 김태용 박종찬 옥동훈(이상 25회) 조만석(26회) 박종기(28회) 김종명(29회) 김대식(31회) 이웅길 이종휘(이상 32회) 박상국 유희철 이석희 이호인(이상 33회) 박철웅 최해협(34회) 박진용 정윤희(이상 36회) 이수환(37회) 김태호(38회) 박용한 윤원욱 최보식(이상 39회) 김동우 김용철(이상 40회) 추교용(41회) 김현오(42회) 조청현(44회) 오유준(50회).







강서지구동창회 친구회장 이·취임식이 약식으로 열렸다.

## 강서지구 친구회장 약식 이·취임식

김종규(31회) 회장, 동문 회원 적극 참여 호소

### 2기 집행부 구성 완료

강서지구동창회는 지난 1월 22일 하단의 모퉁집에서 친구회장 이·취임식을 약식으로 거행했다. 지난해 11월말 비대면 이사회를 통해 신임 회장에 추대됐던 김종규(31회) 부회장을 1월 19일 밴드를 통해 정식 회장으로 확정했다. 이날 행사에 김 신임회장 외 김택영(26회) 전임회장, 백영호(28회) 전 부회장, 이수관(38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김 전임회장과 백 전 부회장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강서지구동창회는 김 전임회장과 백 전 부회장을 고문으로 위촉, 기존의 손 부흥(15회), 노기태(20회) 고문과 함께 4명의 고문단을 두게 됐다.

김 신임회장은 “자랑스럽고 든든한

선배님들의 참여와 후원을 받고 있는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면서 동문회의 주인인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김 신임회장은 3~4월 첫 모임을 야외에서 체육행사 내지는 단합행사를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강서지구동창회 2기 집행부 구성이 확정되었다. △회장=김종규(31회) △부회장=이병훈(32회) 정재형(38회) △감사=김창범(32회) △사무국장=이수관(38회) △사무1차장=김성준(44회) △사무2차장=이진행(46회) △조직차장=구민수(50회) △재무차장=최우영(51회) △기획홍보1차장=정상중(52회) △기획홍보2차장=우재준(53회) \* 밴드운영 △주 운영자=조직차장 구민수 △부 운영자 사무국장 이수관, 사무1차장 김성준.

## 울산지역동창회, 비대면 임시총회 개최

회관 새롭게 단장...집기·비품 기증 줄이어

○...울산지역동창회는 지난해 연말에 비대면 임시총회를 열었다. 2020년 3차 이사회 의결(11월 25일)에 따라 회칙 일부 개정의 건과 회장 등 임기에 관한 건 등 3가지 안건을 동창회 밴드에 올려 찬반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회원들에게 찬반 여부를 물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최일진(31회) 현 회장의 임기 1년 연장이 추진됐다. 또 총회를 대면회의로 치르지 못할 경우 SNS를 통한 비대면회의의 개최가 가능토록 회칙을 개정했다.

○...울산지역동창회는 무거동 소재 동창회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오랫동안 널브러져 있던 집기와 용품 등을 정리하고, 회관 입구 천막도 교체했다. 낡은 소파와 파손된 의자는 폐기처분하고 실내조명도 환하게 보강하는 등 동창회관 정비작업을 완료했다.

울산지역동창회는 이번 정비작업 과정에서 집기와 비품 기증운동을 크리스마스 전 공개적으로 펼쳤다. 이문희(23회·프라우메디병원장) 동문이 냉온풍



새롭게 단장한 울산지역동창회관 입구 모습.

기를, 최일진(31회) 울산지역회장이 회의용 간편의자(10개)를, 김인수 울산지역 35회 회장이 수납장을, 30회 동기회(회장 김치영)에서 회관 출입문 번호 key(시공비 포함 15만원) 구입비를 각각 순서대로 약정하거나 보내왔다.

## 하창우(27회) 재경동창회 신임회장 취임



재경동창회는 지난 1월 19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으로 2021년도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갖고 제24대 회

장에 하창우(27회·사진) 수석부회장을 선임했다. 소속 동기회, 동호회 등에서 회장, 총무 중 1명씩 그룹카톡에 초대하여 진행했다. 신구회장 이·취임식은 지난 1월 20일 소수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김해지역동창회 “식지 않는 우리 열정”

박원곤(32회) 신임 회장 조출한 취임식 9행시 경연대회...장원 차의수(29회) 동문

### 지리산 천왕봉 원정대, 등정 성공

○...김해지역동창회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김해고 앞 만포장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조출하게 가졌다. 코로나19의 기승으로 정기총회 겸 송년회가 무산되자 공식적인 인수인계의 필요성에 따라 차의수(29회) 전임 회장과 박원곤(32회) 신임 회장을 비롯한 소수 인원 참석의 모임을 가졌다. 이날 차 전임회장이 식대 35만원을 찬조했다.

○...김해지역동창회가 코로나19 사태가 낳은 ‘비대면 문화 및 놀이’에 적합한 ‘9행시 경연대회’를 가지면서 동문간 우애를 다졌다. 김용진(36회) 동문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1월 10~15일 참가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동창회 밴드에 올려 동문들이 읽어보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차의수(29회) 동문이 30표를 얻어 장원인 대상을 거머쥐었다. 최우수상 김성준(44회-20표), 우수상 이상현(45회-10표), 마중물상 이상운(23회)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시상금은 대상 5만원, 최우수상 3만원, 우수상 2만원이다. 시상식은 2월 월례회에서 갖는다.

차 동문의 9행시를 소개한다.

‘경남중고 다닌 사람/ 남녘땅의 멋진 남자/ 중학시

절 뜻을 품고/ 고교시절 준비하여/ 김해에서 이룩하네/ 해동에서 멋진 추억/ 동문끼리 만들어서/ 문무 겸비 멋진 용마/ 회장 중심 단합하세’.

○...김해지역동창회 ‘지리산 천왕봉 원정대’가 지난 1월 16일 당일치기로 천왕봉 등정에 성공했다. 산행대장 차의수(29회), 선두대장 김용진(36회), 후미대장 김기덕(37회) 동문으로 꾸려진 원정대는 김해에서 지리산 중산리 주차장까지의 교통편 이용 시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산행에 걸린 시간은 8시간이었다. 오전 9시 30분 중산리 주차장을 출발하여 오후 7시 30분에 무사히 귀환했다.

원정대는 이번 등정 목적이 ‘코로나19 극복과 치유의 염원을 담아 용마남아의 기상을 떨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해지역동창회 ‘지리산 천왕봉 원정대’가 정상에 올라 자축하고 있다.

## 애틀란타 동문들, 새해 덕담 나눠



애틀란타 지역동창회가 단출한 신년회를 가졌다.

미국 애틀란타 지역 동창회가 전체 신년모임을 갖지 못한 가운데 현지 일부 동문들이 지난 1월 15일 들루스 소재 미송 일식에서 모여 오랜만에 함께 식사하며 덕담을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는 안근식(29회) 권건오(32회) 최호성(34회) 서동욱(37회) 김대형 김정연(이상 44회) 동문이다.



# 보수동책방골목, 세계적 명소 조건 갖춘 숨겨진 보고(寶庫)



양수성(46회)의  
古서적을 찾아서 ③

한국전쟁이 낳은 역사성, 영국 ‘헤이온와이’보다 더 오래돼  
40여 서점, 세계 최고로 밀집…‘책의 신천지’ 열 축제 절실

지난번에는 책, 그림, 고미술품 등에 대한 에피소드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다음 회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있는 보수동책방골목과 골목에서 진행된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전할까 합니다.

1961년 영국의 한 시골마을인 헤이온와이(Hay on Wye)에 리처드 부스라는 한 청년이 책방을 열었습니다. 그 뒤 70년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러서는 약 30여개의 헌책방이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마치 책방을 제외한 다른 가게들은 이 책방들의 액세서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을이 만들어졌지요. 다소 인위적이기는 하지만 유명인들을 마을로 초대하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열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곳 헤이온와이는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책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의 책마을로 이름을 알리는 중입니다.

한편 일본 도쿄의 중심가인 간다에는 150여개 이상의 서점과 관련 출판사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간다(神田)고서점 거리가 있습니다. 영국의 헤이온와이와는 달리 일본의 개화가 펼쳐진 메이지 유신 직후 일본의 유명 대학들이 간다 부근에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만들고 사고파는 공간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없어도 이곳 간다에는 있다’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는 책방거리의 표본이기도 한 곳이지요.

이 두 곳의 서점거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책의 신천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헤이 축제(Hay Festival)와 간다고서축제라고 불리는 행사를 말합니다. 평소에도 많은 방문객이 왕래를 하지만 이 축제기간에는 그야말로 책과 사람, 그리고 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폭발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책과 관련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출판도시를 지향하는 파주에서 열리는 ‘파주 북소리’, 홍익대 인근을 책으로 색칠하는 ‘와우북 페스티벌’, 그리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대한민국독서대전 등 책을 콘텐츠로 한 행사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이유로 언택트 형식의 온라인 축제가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개 부스를 설치하여 진행하는 형태의 축제는 많은 지역에서 열리는 일반적인 콘텐츠의 축제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의 자랑거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보수동책방골목에서 해마다 열리는 ‘보수동책방골목 문화축제’는 우리나라의 책방 집적지에서 열리는 최초의, 그리고 전통이 깊은 책 관련 행사입니다.

이 보수동책방골목의 축제는 2004년 필자의 조그마한 일탈에서 시작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당시 부산의 설치미술 작가 팀인 ‘호흡’의 ‘헌책방기습전’이라는 설치미술전을 시작으로 전국의 헌책방을 소재로 사진을 찍는 한글학자인 최종규 씨의 ‘헌책방 사진전’이 열렸고, 그리고 마임이스트인 김세진 씨, 기타리스트인 서승환 씨 등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여 한 곳의 책방에서 만드는 작은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그 서점은 저의 ‘고서점’이었지요. 관객들은 고서점 안에 전시되어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기도 하고, 책방에서 연주되는 기타의 음률에 취하기도 했으며, 마임이스트의 손짓에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진행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관람객들은 책방에서 열리는 새로운 시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진행되어왔던 책방골목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주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수동책방골목의 역사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 피난민들과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좌판에서 책을 팔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다 고서점거리의 역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헤이온와이와 비교하여서는



보수동책방골목 정경.



영국의 헤이온와이(왼쪽)와 일본의 간다(神田)고서점 거리.



충분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官) 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공간이 아닌 당대의 시대 상황, 즉 한국전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공간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책마을 또는 책방거리에 비해 못지 않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보수동책방골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자랑하는 책방 집적지라는 점에서 웬지 모를 자존감이 꿈틀거리기도 하지요.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중심으로부터 반경 약 150m 이내에 40여개의 서점이 자리를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더라도 뛰어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보수동책방골목일 것입니다. 단지 골목이라는 너무 협소한 공간에서 오는 단점을 제외하면 말이지요.

어쨌든 한국전쟁은 수많은 책들을 보수동책방골목에 주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때 많은 지식인들이 소장 중이던 책을 수레에 또는 어깨에 메고 부산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서 등 희귀본들이 책방골목으로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보수동책방골목의 1950년대는 고서와 희귀본의 보고(寶庫)라 일컬을 정도였지요. 이러한 희귀본 가운데에서도 육당(六堂) 최남선 선생의 저서인 ‘조선상식문답’ 시리즈는 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조선상식문답’이라는 책은 일제시대인 1937년 한 신문에 강토편(疆土篇)·세시편(歲時篇)·풍속편(風俗篇) 등 16편 456항목의 내용을 <조선



육당 최남선



최남선 저 ‘조선상식문답’.

상식>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하였던 데 이를 광복 후인 1947년에 다시 펴낸 책이 바로 ‘조선상식문답’입니다.

‘조선상식문답’은 총 10편 175문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국호편을 비롯하여 조선의 지리와 관련된 내용인 지리편, 조선의 자원과 동식물의 수 등을 밝힌 물산편, 풍속편, 명절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 명일편, 역사, 신앙, 유학, 제교(종교), 어문 편 등으로 이뤄져 있지요.

먼저 그 문답들 중 역사와 관련한 의미있는 내용을 하나 소개해보겠습니다. 역사를 거울로 하여 우리가 고쳐야 할 병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답은 이러합니다.

‘자주정신이 든든치 못함과 전체의식이 분명치 못하고 공공심의 부족과 책임 관념이 없다’고 이야기 하며, 또한 ‘조직적 행동에 소홀함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답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 같아 뜨끔하기도 하고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 육당 최남선: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벽초 홍명희, 춘원 이광수와 함께 당대 3천재라 불렸던 인물.



# ‘후배 꿈 들어주고, 동문사랑 들려주며’ 소통과 화합 “활짝”

## 15차 160명 참가한 ‘감동의 위스키여행’시리즈 종료

‘말 한마디 그리운 코로나19 시대. 얼굴 마주하고 앉아 후배들 꿈 들어주고, 동문사랑 들려주며...’ 박종찬(25회) 전 총동창회장이 지난 2020년 후반기 4개월 동안 15번의 일요일 저녁 모습이다. 40회부터 54회까지 매주 1개 기수 10명 안팎을 중심으로 하여 40회 이전 기수 일부 동문이 합류한 ‘위스키여행’이었다. 위스키를 매개로 한 동문 소통과 화합의 이벤트였다.

15차에 걸쳐 이어진 이번 행사에 총 160명가량이 참가했다. 매주마다 위스키 강의와 만찬, 이어서 담론의 장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강의에 거론된 품목 등 30여 종류의 위스키를 시음하고, 동기간 선후배간 우정의 대화를 나누고, 세상살이의 농익은 귀한 조언까지 들을 수 있었다. 이구동성으로 유익하고 격조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호스트인 박 전 총동창회장은 “차수를 거듭할수록 위스키강의 수준이 높아졌다. ‘Teaching is learning’ 덕분에 저도 증류주에 대해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총동창회장은 “예상보다 술 소모량이 너무 적어서 아직 많은 재고를 안고 있다. 코로나19가 물러나는 시점에 아쉬움을 가진 후배들을 초대해 특별이벤트를 가져볼까 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스키여행의 성공적 마무리 는 박 전 총동창회장의 부인 문영희

여사의 극진한 내조가 뒷받침되었다. 박 전 총동창회장이 자기암시처럼 말하는 ‘난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의 첫번째 복이 무엇인지 가슴이 되는 대목이다.

◇참석자(무순) ▲13차(12월 6일, 52회와 그 외)=김현진 김지운 허근영 정상중 김민철 김민수 박선중 한중현(이상 52회) 김대옥 현응열 박봉구(이상 29회) ▲14차(12월 13일, 53회)=이원준 송승운 김권우 한동인 이진수 문희규 황종민 ▲15차(12월 20일, 54회와 그 외)=조중완 정준섭 임길환 이재진 이재필 고지현(이상 54회) 류명석 이병태 오민일 홍성수(이상 31회).



박종찬 전임 총동창회장이 지난해 자택에서 마련한 ‘위스키 여행’ 시리즈에 참가한 52, 53, 54회 동문들과 선배들(사진 왼쪽부터).

## 부산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에 당선

### 정신(47회) 동문 “행동하는 회장 되겠다” 포부

#### 경남중 야구부 바람막이 50벌 기증

47회 동기회장인 정신(효창수산대표) 동문이 부산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에 당선되었다. 지난 1월 8일 부산시 체육회관에서 거행된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획득했다. 정 동문의 부산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 취임은 부산시 야구협회장을 12년 역임한 ‘부산 야구의 산 증인’인 부친 정효기 씨의 대를 이은 것이라 의미가 더욱 크다.

정 동문은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회장이 되겠다. 부산 야구 발전과 개혁을 위해, 또 협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이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정 동문은 지난 2018년 여름 제1회 효창수산배 부산-경남 리틀야구대회를 창설하고 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리틀야구의 발전과 더불어 생활체육으로서 야구가 확산되는 계기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동문은 대신중, 경남고, 성균관대에서 야구부 선수로 활약했던 정통 야구인이다. 포지션은 투수 겸 중견수. 덕영리그에도 참가하고 있다. 정 동문은 경미회 ‘허리’로 활동 중이며, 동창회 일에 술선수범하는 등 차세대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정 동문은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경남중을 방문, 야구부 선수들을 위한 동계 바람막이 50벌을 기증했다. 대신중 야구부 출신인 정 동문의 선행을 지켜본 한 동문은 “큰 ‘그릇’이 되겠다”는 호평을 내기도. 정 동문은 지난해 10월 경남고 야구부에 나무배트 30자루를 기증한 바 있다.



정신(47회 오른쪽에서 두번째) 동문이 경남중 야구부에 바람막이 50벌을 기증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상욱(53회) 경남중 야구부감독, 정 동문, 김미정 경남중 교장, 김경배 경남중 야구부장.

## 54회, 경남고에 발전기금 300만원

### 홈커밍데이 후 야구부후원금 200만원도 전달

54회 동기회(회장 조중완)는 지난해 11월 27일 모교 경남고에 발전기금 300만원과 야구부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54회 동기회 조 회장, 이재필 부회장, 김영빈 사무국장은 경남고 교장실에서 정대호 교장을 만나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14일 영주동 코모도호텔에서 졸업2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던 54회 동기회는 당일 학교 측 사정으로 기부금 전달식을 갖지 못해 이날로 미뤘다.

지난해까지 총동창회 막내기수인 54회 동기회가 코로나19라는



54회 동기회가 모교 경남고에 발전기금과 야구부후원금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필 54회 동기부회장, 정대호 경남고 교장, 조중완 54회 동기회장, 김영빈 사무국장.

엄혹한 상황에서도 홈커밍데이 행사를 치르고, 모교발전기금까지 모금하여 기부한 애교심과 정성에 대해 선배동문들은 이구동성으로 “장하고, 기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특히나 54회 동기회는 선배 공경 자세가 돋보여 선배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 송년회 무산 아쉬움 달래준 ‘사랑의 선물’

### 경미회 회장·부회장 40회 기수, 물품 찬조

지난해 말 코로나19사태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송년회를 열지 못했던 경남중 고미래발전협의회(경미회) 회원들은 최고참 선배 기수와 단체에서 전한 ‘사랑의 선물’ 보따리를 받고 아쉬움을 달랬다. 우영환 회장을 비롯하여 40회 부회장단이 선물을 찬조했다.

◇찬조 내역=△우영환 회장-2021년 다이어리, 2021년 3단 달력(생략 선물 세트는 유통기간이 있어 다음에 찬조) △배명훈 부회장-그린퍼거 손소독 물티슈 △임태영 부회장-2021년 탁상달력 △배영진 부회장-미니 공구세트 △경미회-송년회 수건.



## “경남고 ‘197명의 용마’ 날개 달다”

### 제75회 졸업식 거행

“지난 3년 옥 같이 갈리고 쇠 같이 닳린 경남고 197명의 용마들이 구덕산 기슭의 보금자리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 대학 진학, 또는 사회 진출 어디로 가든 그대들은 황금빛 날개를 단 선(善)하고 용맹스러운 용마들이다. 날아라! 그대들이 꿈꾼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달려라! 그대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경남고 제75회 졸업식이 지난 1월 6일 거행되었다.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 19사태의 영향으로 방송실과 3학년 각반 교실에서 방송으로 진행되었다. 1·2학년은 가정에서 원격으로 졸업식에 참여하여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2020학년도 3학년 홍예준(학생회장)군은 정대호 교장으로부터 직접 졸업장을 수여 받았고, 나머지 196명의 졸업생은 각반 교실에서 담임교사로 부터 졸업장을 수여 받았다.

교내상 수상자는 학업최우수상 김성진, 학업우수상 황예찬 서준석, 3년 개

근상 옥승호 외 32명, 공로상 문성준 외 36명이며, 교외상 수상자는 동창회장상 홍예준, 학교운영위원장상 김성진 등이다. 이밖에 수상자는 부산은행장상 이정현 김민기, 서구청장 표창이 채형 위호진, 부산교총회장상 이경식, 부산외대총장상 신재민, 인제대총장상 송진원, 신라대총장상 이제익, 마산대총장상 김지섭, 동아대총장상 안제원,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상 강민기, 경남정보대총장상 이창주, 동주대총장상 권준영, 동의과학대총장상 김선중 등이다.



경남고 75회 졸업식이 교내 방송실에서 열렸다.



경남고 야구부가 모교 운동장에서 동계훈련 중이다.

## 경남고 야구부, 동계훈련 비지땀

### 윈터리그전에도 참가, 훈련성과 점검

경남고 야구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동계훈련에 돌입했다. 참가 대상은 2학년 이세운 외 28명, 전광렬(44회) 감독 이하 코칭스태프 3명이다.

훈련은 경남고 운동장 및 체육관, 기장군, 해남 등에서 실시 중에 있다. 훈련은 오전 훈련, 오후 훈련, 야간 훈련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년별, 포지션별, 조별 훈련 등 분산 훈련을 갖는다. 또한 훈련 전 발열 검사 및 손 소독, 훈련 후 손 씻기 및 소독, 기침 예절 지키기, 분산 식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동계훈련 기간 중 2월 1~10일 부산 윈터리그(전국의 약 20개 야구팀 참가 예정)에 참가하고, 2월 18~28일 완도, 해남 윈터리그(약 14개 팀 참가 예정)에 참가하여 동계 훈련 성과를 최종 점검하고, 2021학년도 각종 대회에 대비할 예정이다. 코로나19사태로 대회 개최 여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2021학년도 신입생은 부산광역시 내 중학교 출신으로 17명을 배정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2월 10일부터 동계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나, 교육청 방역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경남중 ‘130명 용마’ 미래를 품다”

### 제78회 졸업식 거행

경남중의 ‘어린 용마’ 130명이 정든 교정을 떠났다. 한 차원 높은 남자의 세계, 학업의 길을 용마의 품위와 기상으로 달려가라! 꿈과 끼와 끼를 더 수련하고 키워 훗날의 세상과 만날 날을 기약하라! 어디든 가든 용마 선배들이 그대들을 반기리라.

경남중은 지난 2월 9일 제78회 졸업식을 가졌다. 총 졸업생 수는 3만5,651명이다. 이날 졸업식에서 영예의 종합 최우수상 수상자(학교장상)는 3개학년 총 내신석차 1위를 꺾은 최형욱군이였다. 이밖에 부산은행장상은 내신석차 2

위 엄재혁, 서구청장상은 내신석차 3위 홍경민군이 차지했다. 총동창회장상은 학생회장 류연흠군이 차지했다.

한편 2021년도 신입생 입학식은 오는 3월 2일 갖는다. 신입생 수는 5학급 142명이다.



경남중은 2020년도에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기념하여 교문 위에 자축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 경남중 2020년 풍성한 성과 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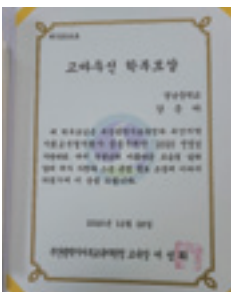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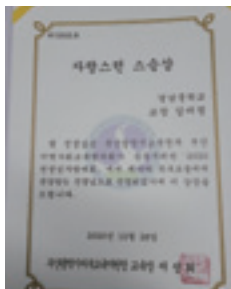
###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명문 저력 과시

경남중은 2020년도에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풍성한 실적을 거둬 명문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교사, 학부모와 학생, 지역사회가 한마음이 되어 일군 값진 성과였다.

학년초 2020년도 공모사업 선정에서 △자치활동 활성화(200만원) △방과후 학교 활성화(300만원) △학부모 교육과정 참여(300만원) △무한상상실 선정(5천만원 확보) △학교공간혁신 공모 △생활지도 실천사례 계획서 △블랜드교실 선정 등 성과를 달성했다. 학년말에는 △자유학기제 우수학교 교육감표창 △학교·학부모 소통 교육부장관표창(우수·상금30만원) △블랜드교실(1억684만원) 구축 중 △학교공간혁신(4억원) 선정 (2021년 추진) △방과후 학교 담당자 교육감상 수상 △자랑스런 스승상 교육장상 김미정(교장·사진) 고마우신 학부모상은아 (운영위원회 회장·사진) △생활지도실천사례1등급(생활부장) 등의 실적을 쌓았다. 또 학부모 교육과정 참여 교육부장관 표창(전국 우수)도 수상했다. 특히 ‘자랑스런 스승상’은 제자와 학부모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으로 선정된 것이며, ‘고마우신 학부모상’은 선생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널리 알려 제자 사랑과 스승 존경 풍토 조성에 기여한 공으로 주는 상이다.

김미정 경남중 교장은 “아이디어·계획서·보고서·실행 등이 잘 어울린 멋진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특히 김 교장은 부임 시 공약했던 학교 공간혁신사업 유치가 실현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며

변함없이 학생의 성장과 학교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학로 조성도 학부모·교직원·교육청·서구청에서 함께 힘을 모아 학교앞 주차장 5곳을 폐지하여 통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오는 4월에는 깨끗한 학교주변환경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공사가 시작될 계획이다.



김미정  
경남중 교장



강은아  
경남중 운영위원회 회장



##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 17회 산악회 = 해운대 장산과 영도 해변 갈매길 산행



지난해 12월 6일(일) 해운대 장산탐과 영도 해변 갈매길탐으로 나누어 끼리끼리 산행을 다녀왔다.

참석자: 김길호 송유근 신정아 오태식 이진우(장산탐) 박신도 박재구 박청홍 하영수(영도탐)

### 28산우회 = 송년산행



28산우회(회장 최연옥)는 지난해 12월 13일(일) 오전 9시 지하철 동백역에서 집결, 운산 경로당 뒤로 입산해서 해운대 장산 능선을 한 바퀴 돌아오는 연말 산행을 다녀왔다. 하산 후 좌동 재래시장에서 뒷풀이 회식을 가졌다. 이 자리서 지난 2년간 산우회를 이끌어온 최 회장의 노고를 뜨거운 박수로 치하하고, 2021년도 산우회장으로 김정유 동기를 추대했다.

김 신임 산우회장은 수락연설에서 "재미있는 산행을 위해 용마산악회와의 합동산행, 타 여성 산악회와의 공동산행 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상곤 동기가 총무로, 김대성 동기가 산행대장으로 발탁됐다.

참석자: 김이청 김정유 박재훈 여인남 옥상곤 이인재 최연옥 허남식 박종기(뒷풀이 참석)

### 28회 동기회 = 정기총회 SNS로 진행

28회 본부동기회 박종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단

### 바둑대표단, 2월 28일 대신고와 16강전 YES24 고교 동문전...32강전서 동인고에 신승

제14회 YES24 고교 동문전에 출전 중인 경남고 동문 바둑대표선수단의 16강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2월 28일 오전 10시 대신고와 일전을 치른다. 경남고 대표단은 32강전에서 동향의 동인고에 신승했었다.

한편 경남고 대표단은 지난 1월 28일 오후 서면부 전기원에서 16강전에 대비하여 릴레이바둑 및 연기바둑 연습을 하고 대국 후 복기 검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뒤풀이 자리에 이용흙 용마장학회 이사장, 남진현(이상 19회) 총동창회관장, 허범도(22회) 고문이 합류, 대표단을 격려했다. 이 이사장이 식사비를 찬조했다.

대표단은 김대욱(29회)-기우회 회장(총동창회장) 선수(초반), 이관선(28회)-선수 및 감독(초반), 강성훈-선수(중반), 이영태(이상 29회)-선수(중반), 김준영(31회)-선수(연기바둑), 고승성(40회)-기우회 총무 선수(연기바둑) 등이다.

## 설산(雪山)보다 더 빛난 산사나이들 우정

안형수(24회) 문일호(28회) 남기태(31회) 동문, 3대 명산 정상 올라

산사나이들의 깊은 우정은 아름답다. 안형수(24회 산행대장), 문일호(28회), 남기태(31회 산행대장·전 용마산악회장) 세 동문이 함께한 지난 연말과 연시의 한국 3대 명산 정상(설악산 대청봉·사진, 지리산 천왕봉, 한라산 백록담) 등정은 동문사회에 감동과 부러움을 안겼다.

지난 25년여 동안 술한 국내외 산행을 함께하며 우애를 다져온 이들은 혹한기인 지난해 12월 19일과 26일, 올해 1월 26일 '거사(巨事)'를 감행하고 3대 명산 정상에 올라 호연지기를 펼쳤다.

이번 등정은 안 동문이 지난해 24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기획했던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무산되자 문·남 두 후배 동문이 동행을 자청하여 성사되었다.

안 동문은 체력이 허락하는 한 두 후배의 졸업 50주년 기념산행에 우정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 모임이 어려워 연말 정기이사회와 총회를 SNS를 통하여 심의하고 의결했다. 임원선임과 회비 균등화 등의 안건을 12월 21~26일 동안 단체카톡방 이사회를 통해 1차 심의한 다음, 이를 12월 28~30일간 동기회 밴드 총회에 상정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었고, 투표회원 전원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률로 의결함으로써 모든 안건이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됐다.

투표 결과 박종기 현 동기회장과 이인재 현 감사의 연임이 확정되었다. 동기회 임원별로 차이가 있던 동기회 연회비는 전 회원 10만원으로 균등화되어 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28동기회는 SNS를 통한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도 오프라인(Off Line) 모임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2019년 말 총회에서 승인하고 이 사항을 회칙에 추가한 바 있다.

### 30회 동기회 = 정기총회



2020년 12월 18일 예정된 동기회 총회를 코로나19로 열지 못 하고 비대면으로 의결사항을 진행했다.

윤인태(사진)동기가 2021년의 새로운 동기회장으로 동기생 만장일치 찬성으로 선출됐다. 총동창회 부회장 겸 감사로 활동 중인 윤 신임 동기회장은 부산고등법원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은퇴하고, 현재 법무법인 해인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윤 신임 동기회장은 "올해도 코로나19사태로 쉽지는 않겠지만, 동기회 모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33회 동기회 = 효심데이케어센터 방문



지난해 12월 3일(목) 백홍문 동기가 총괄이사로 근

### 손부흥 15회 동기회장 우정의 선물



손부흥(사진) 15회 동기회장은 지난 연말 동기생들에게 우정의 선물을 전달했다. 손 동기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사태로 동기회 모임을 갖지 못해 동기생 위로 차원에서 사비(108만원)를

들여 2021년 동기회 달력과 기념타일(각 100장·사진)을 제작, 연말선물로 배포했다. 손 동기회장은 현재 재만 4년동안 동기회장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



무하는 김해 효심데이케어센터에 백수현(동기회장), 공진우(33야구단장) 동기와 함께 이정호 동기가 직접 준비한 위문품(양과자, 굴, 마카롱 등)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 33야구단 = 송년회



33야구단(단장 공진우)은 지난해 12월 18일(금) 부평동 해성돈가(33회 김일 동문 운영)에서 오찬모임(발열체크 시행)을 가졌다. 이 자리서 힘든 코로나19시국에 한해를 무탈하게 마무리하길 기원하고, 2021년 덕형리그 준비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참석자: 공진우 김일 김종욱 박근보 박상국 백수현 윤상현 이동근 이윤조 이정호 정성우



##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주라오스 한국대사배 야구대회 창설  
임무홍 대사 “라오스 야구 새싹들 꿈 펼칠 기회”

임무홍(25회·사진) 전 중 부산지구회장이 주라오스 한국대사로 부임하자 제1회 주라오스 한국대사배 야구대회가 창설돼 개막식이 열렸다. 지난 1월 9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DGB야구장에서 개막한 이번 대회에는 남녀 6개 팀의 선수 120여 명이 출전했다. 인구 720여만 명인 라오스에서 야구선수는 이들이 전부이다.



‘라오스 야구의 아버지’로 불리며 라오스 야구협회 부회장을 맡은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 감독이 2013년 창단한 ‘라오J브라더스’가 현지 최초 남녀 야구팀이다. 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가 공동으로 파견한 코이카 라오스 프로젝트 봉사단이 2019년 4월 창단한 라오스 동덕 국립대 남녀 야구팀인 ‘라오스 미라클’과 웨인짠 고교 남녀 야구팀이 전부다.

특히 이 대회 개최지 DGB야구장은 한국의 DGB 금융 지원으로 국제 규격의 인조잔디 구장으로 지은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한다.

임 대사는 개회사에서 “야구는 한국과 라오스 간 미래세대 협력을 상징하는 스포츠”라면서 “주라오스 한국대사배 야구대회를 정례화해 라오스 청소년 야구 새싹들이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우호 친선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가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남녀 6개 팀이 주말을 이용, 리그전으로 펼쳐지며 오는 2월 27일 폐막 예정이다.

## “힘들었던 그때 우정, 영원히 못잊어…”

‘포크계 대부’ 한대수(20회) 동문, 김형수 동기 찾아

모국 방송 출연…시청자 감동  
박준 동기, 농심 제품 선물 전달

한국 포크계의 대부로 알려진 한대수(20회) 동문이 지난해 12월 16일 저녁 KBS 2TV ‘TV는 사랑을 싣고’ 프로그램에 출연, 힘들었던 학창시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타를 가르쳐 주었던 같은 반 동기생 김형수 동문을 찾는 여정을 보여주고, 한땀한 가족사를 전해 큰 이목을 끌었다.

동기생 김 동문 찾기에 모교 경남고 정대호 교장의 인터뷰와 덕행관을 비롯한 모교 정경이 화면에 나왔다. 총동창회 명부를 통해 김 동문을 찾자 김 동문의 핸드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다. 김 동문은 도서관에서 핸드폰을 꺼두고 열공 중이었다. 다행히 연락이 닿아 만난 두 사람은 반세기도 더 넘은 옛 추억을 더듬으며 우정을 나누었다.

미국에 체류 중인 한 동문은 이날 비극적인 가족사를 이야기하며 음악을 하게 된 계기를 들려주었다. 한 동문이 출생 100일 때 핵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아버지가 4~5년 후 실종되었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초대 학장을 지낸 조부가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다. 어머니는 가족의 권유로 재가했고 한 동문은 조부모 밑에서 성장했다.

조부는 아버지 찾기를 계속했고, 결국 FBI가 실종 17년 만에 찾아냈다. 아버지는 한국 말은 물론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고 결혼까지 했으며 인쇄 출판업을 하는 등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아버지의 실종 이유와 그 이후 행적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한 동문은 고1 재학 중 아버지를 만나러 도미했고, 그로부터 3년여 동안 당황한 새어머니의 냉대를 받았다. 한 동문은 미국 다락방에서 기타를 치며 조국과 친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달랬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세시봉’에서 노래를 불렀다. “장막을 걷어라”(‘행복의 나라’)하며 한국 포크의 역사를 열어 제친 그는 ‘히피 문화의 선구자’ ‘한국 최초의 싱어송라이터’ ‘음유시인’이란 칭호를 갖고 있다.

한편 이 방송을 본 박준(농심 부회장) 동기는 동기애와 탁월한 마케팅 감각을 발휘, 곧바로 농심아메리카 현지법인 사장에게 연락하여 현지 직원이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직접 한 동문의 뉴욕 집을 방문해 하여 농심 라면과 스낵 등 판촉제품 선물을 전달하였다. 우정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또다시 우정을 낳는다.



한대수 동문 내외가 뉴욕 자택에서 농심 부회장인 박준 동기가 마련해준 풍성한 농심 제품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 동 정

## 박명진(33회), 부산대총동문회 회장 취임



△박명진(33회·김해상공회의소 회장·고려개발그룹 회장)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이 지난 1월 27일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제40대 회장에 취임했다. 박 동문은 취임사에서 “부산대 총동문회 회장으로서 동문 간 소통의 가교역할에 더욱 주력하여 동문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로 열린 동문회를 만들겠다. 25만여 동문들의 염원으로 완공된 동문장학회관을 기반으로 장학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여 모교의 인재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총동문회가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 동문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육군중위로 예편, 1991년 고려개발(주)을 설립해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주), 에이치비관광리조트(주), 에이치비힐링타운(주), 에이치비종합레포츠(주), (주)고려디앤씨, (주)유엘아이프로퍼티, 아이스퀘어호텔, 아이스퀘어쇼핑몰 등 계열사를 경영하고 있다.

## 최장혁(36회), 자치분권기획단장 임명



△최장혁(36회·인천시 행정부시장) 동문이 1월 18일자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

장으로 영전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최 동문은 행시(제36회) 출신으로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대변인,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행안부 전자정부국장 등을 역임한 엘리트 공복이다.

## 박철민(37회), 주헝가리대사 임명



△박철민(37회·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 동문이 지난해 12월 2일 주헝가리 대사에 임명됐다. 박 동문은 외교부 유럽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 동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수여받았다.

## 김형훈(40회), 의정부지법원장 임명



△김형훈(40회·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동문이 최근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에 임명됐다.

경남 사천 출신인 김 동문은 부산대를 졸업한 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25기)을 마치고 법조계에 입문했다. 1999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같은 법원 동부지원·서울지법 고양지원·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춘천지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서울서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을 두루 거쳤다. 특히 김 동문은 일선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를 법원장에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려 최종 임명됐다.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동료 법관 및 직원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 유수호(41회), 부산진세무서장 영전

△유수호(41회·울산세무서장) 동문이



국세청 하반기 과장급 전보 인사에서 부산진세무서장으로 발령이 났다. 서강대 출신인 유 동문은 울산세

무서 부가세과장 ▲제주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부산청 청렴세정계장 ▲부산청 조사2국 조사2과장 ▲부산청 조사1국 조사3과장 ▲부산청 전산관리팀장 ▲부산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 새해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 윤철홍(44회) 동문 1호 입금

윤철홍(44회) 동문이 2021년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제1호로 기록됐다. 지난 1월 1일 오후 4시 18분에 입금되었다. 지난해 최초 입금자는 김기덕(37회) 동문이었다. 윤 동문 이후 2번부터 15번까지 순번대로 소개한다. 오민일(31회) 공진식(36회) 김원철(38회) 이양걸(41회) 장재훈(31회) 김찬홍(44회) 김광철(42회) 임창섭(36회) 이찬희(54회) 이육한(55회) 정윤희(36회) 정재형(38회) 한동인(53회) 김종만(33회) 동문이 차례로 납부했다.



요즘 어떻게?

<13회>

△박정일 = 부인상. 1월 14일 한양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옥종석 = 딸 은재양 2월 20일(토) 오후 3시 더 클 래스 청담에서 결혼식.

<19회>

△최경곤 = 빙모상. 12월 21일 목동 이화여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서 발인.

<20회>

△이영진 = 아들 12월 26일(토) 낮 12 시 10분 KR컨벤션 웨딩홀 2층에서 결 혼식. △이종찬 = 부인상. 1월 8일 서 울대학교병원 영안실 4호에서 발인.

<24회>

△김승탁 = 빙부상. 12월 12일 부산 전문장례식장 VIP 3호실에서 발인. △ 김종환 = 빙모상. 1월 27일 아시아드 장례식장 5층 1호실에서 발인. △장 현동 = 모친상. 1월 2일 동아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에서 발인. △ 정영덕 = 차남 동환군 1월 30일(토) 낮 12시 서울 코엑스컨벤션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 △최병석 = 차남 윤민군 1월 23일(토) 오후 3시 이 천 아모르컨벤션웨딩 큐피트홀에서 결혼식.

<26회>

△박인근 = 부친상. 1월 14일 분당서 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서 발 인. △배한수 = 아들 서현군 12월 25 일(금) 오전 11시 30분 더채플앳청담 6 층 채플홀에서 결혼식. △송제명 = 빙부상. 12월 24일 단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에서 발인. △장종언 = 장남 진영군 1월 30일(토) 낮 12시 W 웨딩홀 3층 에메랄드홀에서 결혼식. △

최영수 = 모친상. 12월 16일 부산대학 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서 발인.

<27회>

△배병호 = 빙모상. 1월 16일 동의의 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희수 = 부친상. 1월 1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 장에서 발인.

<28회>

△구영소 = 모친상. 12월 14일 부산 영락공원에서 발인. △김정찬 = 차녀 민지양 12월 6일(일) 오후 1시 20분 서 울 여의도 웨딩여울리 5층 라온제나홀 에서 결혼식.

<29회>

△안재찬 = 차남 민용군 1월 16일 (토) 오후 1시 전남 무안 스카이 웨딩컨 벤션 1층 노빌리스홀에서 결혼식. △ 안종주 = 빙모상. 12월 22일 분당차병 원 장례식장 2호에서 발인. △이성렬 = 부친상. 1월 7일 좋은강안병원 장례 식장 5분향실에서 발인. △임무택 = 차녀 원양 1월 17일(일) 오후 2시 30분 서울웨딩타워 단독홀에서 결혼식. △ 정희용 = 장남 의찬군 1월 31일(일) 오후 2시 30분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 서 결혼식. △장현경 = 모친상. 1월 2 일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에서 발인. △황맹균 = 빙모상. 12월 13일 좋은강안병원 1호실에서 발인.

<30회>

△김병기 = 한겨레치과 이전(2020년 12월28일. T.051-627-9614) △김진 영 = 장녀 주연양 1월 16일(토) 낮 12 시 전경련플라자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식. △김철규 = 부친상. 1월 5일 수원요양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서 발 인. △박흥식 = 「나비 갤러리」에서 1

월 5일~2월 10일까지 신년 특별 기획 전. 김해시 분성로 228, 3층. △양웅식 = 부친상. 12월 4일 동의병원 장례식장 특3호에서 발인.

<31회>

△김광수 = 빙부상. 12월 20일 동아 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득선 = 아들 지훈군 12월 27일(일) 낮 12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앵스퀘어에서 결혼식. △김부영 = 빙모상. 11월 30 일 메리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 민종현 = 부친상. 11월 30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신수열 = 차녀 유빈양 12월 13일(일) 낮 12시 부산 파크하얏트호텔에서 결혼식. △ 이용식 = 모친상. 12월 22일 영도 구 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최동식 = 빙 모상. 12월 13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 장에서 발인. △하병관 = 빙모상. 12 월 29일 부산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3회>

△김광경 = 모친상. 1월 11일 서울산 보람병원 장례식장(언양)에서 발인. △ 김영길 = 모친상. 12월 31일 창원 파 티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종 욱 = 차남 경준군 12월 13일(일) 서면 헤리움 웨딩 컨벤션홀(2층)에서 결혼 식. △김춘복 = 부친상. 12월 15일 온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윤 조 = 부친상. 12월 3일 시민장례식장 에서 발인. △장일중 = 모친상. 12월 15일 용인 보정장례식장에서 발인. △ 정창진 = 아들 민준군 1월 10일(일) 서울 더 채플앳 논현 라포레홀(6층)에 서 결혼식.

<34회>

△황인철 = 아들 12월 19일(토) 오후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재곤(10회) = 12월 22일 작고  
△김종립(10회) = 12월 14일 작고  
△나하연(10회) = 12월 20일 작고  
△김석곤(12회) = 2월 1일 작고  
△최 무(14회) = 11월 30일 작고  
△김준위(17회) = 1월 6일 작고  
△백순조(17회) = 12월 30일 작고  
△윤기태(17회) = 1월 9일 작고  
△이규용(26회) = 1월 17일 작고

2시 30분 더S웨딩홀 컨벤션홀에서 결 혼식.

<37회>

△김광국 = 빙부상. 10월 31일 한솔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성준 = 부친 상. 9월 5일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발 인. △박종민 = 모친상. 12월 16일 종 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윤 태환 = 빙부상. 9월 7일 서호병원 장례 식장에서 발인. △이용만 = 부친상. 9 월 9일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임동민 = 모친상. 10월 4일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 장원익 = 딸 10월 31일(토) 양산 J컨벤 션웨딩홀에서 결혼식. △정남혁 = 모 친상. 9월 20일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주호성 = 모친상. 1월 17일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최재 형 = 부친상. 11월 27일 좋은삼선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41회>

△여근섭 = 1월13일~2월9일까지 보 수동 「갤러리에이치」에서 초대전. 부 산 중구 흑교로 56(보수동1가).

<54회>

△장진영 = 「소란(이자까야)」 11월 16일(월) 신장개업. 부산 중구 광복로6 번길 14-1.

동창회보 구독료 선납부자 명단

4회 정치근 2021년  
6회 임경택 2021년  
7회 윤용우 2021년  
8회 안중열 2021년  
11회 김광석 최창욱 2021년  
12회 김장욱 김종련 2021년  
13회 박홍표 2022년, 안성문 2029년, 이경재 2030년  
14회 이길미 2021년  
15회 박영무 박찬호 2021년, 임영길 2022년  
16회 민신웅 2023년  
18회 갈영수 허만조 2021년, 박기주 박석도 2022년, 홍우재 2024년  
19회 김덕수 김인선 2021년  
20회 오기현 유근준 2021년  
21회 강영도 진영천 2021년  
23회 박재호 2028년, 신연국 2022년, 이정욱 2021년  
24회 김만복 한상철 2021년  
25회 김연석 이성웅 2022년, 김진우 문재인 서병수 송동준 이우석 한현교 허만택 2021년, 임창운 2051년  
26회 강익규 박경수 이정곤 2021년  
27회 문성기 이원호 2021년  
28회 박성권 임상규 2021년, 안풍 2022년,

하재근 2028년  
29회 박희규 2021년  
30회 박정국 2022년, 박철우 2027년, 이철호 최진곤 2021년  
31회 민종현 2021년  
32회 송기수 임채곤 최춘호 2021년  
34회 이성엽 정하태 2022년  
36회 김관용 김병국 이한호 2021년  
37회 서동욱 2021년  
38회 권두성 2029년, 김경곤 주영록 2021년  
39회 박상환 정용국 2021년  
42회 김태구 신동복 정용중 2021년  
43회 최용석 2021년  
44회 김성준 2021년  
45회 최재근 2021년  
46회 김동희 2021년, 한영길 2022년  
48회 김춘호 2023년  
49회 장민건 2021년  
50회 박종현 2028년  
51회 신현식 2029년  
53회 문희규 전세일 2021년  
54회 고지현 김승택 김영빈 남준현 박신우 손희원 이재진 이재필 이찬희 정준섭 제재철 조중완 2021년, 엄도용 2024년  
69회 정민기 2023년

2020년 구독료 납부현황

2020년 12월 31일 현재

| 가수           | 발송부수 | 납부인원    | 납부율(%) | 가수           | 발송부수 | 납부인원    | 납부율(%) | 가수           | 발송부수 | 납부인원    | 납부율(%) |
|--------------|------|---------|--------|--------------|------|---------|--------|--------------|------|---------|--------|
| 1            | 2    | 0       | 0%     | 20           | 171  | 69      | 40%    | 39           | 118  | 63      | 53%    |
| 2            | 1    | 0       | 0%     | 21           | 184  | 106     | 58%    | 40           | 117  | 43      | 37%    |
| 3            | 11   | 6       | 55%    | 22           | 186  | 97      | 52%    | 41           | 91   | 47      | 52%    |
| 4            | 19   | 7       | 37%    | 23           | 219  | 94      | 43%    | 42           | 53   | 21      | 40%    |
| 5            | 27   | 11      | 41%    | 24           | 236  | 116     | 49%    | 43           | 86   | 33      | 38%    |
| 6            | 38   | 20      | 53%    | 25           | 359  | 198     | 55%    | 44           | 73   | 35      | 48%    |
| 7            | 50   | 22      | 44%    | 26           | 230  | 109     | 47%    | 45           | 38   | 43      | 113%   |
| 8            | 59   | 27      | 46%    | 27           | 214  | 83      | 39%    | 46           | 54   | 36      | 67%    |
| 9            | 58   | 24      | 41%    | 28           | 199  | 91      | 46%    | 47           | 60   | 29      | 48%    |
| 10           | 88   | 43      | 49%    | 29           | 233  | 117     | 50%    | 48           | 13   | 9       | 69%    |
| 11           | 124  | 63      | 51%    | 30           | 242  | 115     | 48%    | 49           | 65   | 10      | 15%    |
| 12           | 163  | 79      | 48%    | 31           | 132  | 89      | 67%    | 50           | 68   | 46      | 68%    |
| 13           | 165  | 92      | 56%    | 32           | 120  | 44      | 37%    | 51           | 121  | 16      | 13%    |
| 14           | 136  | 69      | 51%    | 33           | 138  | 62      | 45%    | 52           | 156  | 42      | 27%    |
| 15           | 142  | 77      | 54%    | 34           | 69   | 36      | 52%    | 53           | 43   | 22      | 51%    |
| 16           | 204  | 87      | 43%    | 35           | 128  | 55      | 43%    | 54           | 58   | 69      | 119%   |
| 17           | 134  | 66      | 49%    | 36           | 136  | 66      | 49%    | 55           | 11   | 5       | 45%    |
| 18           | 205  | 91      | 44%    | 37           | 83   | 41      | 49%    | 56           | 10   | 2       | 20%    |
| 19           | 184  | 105     | 57%    | 38           | 96   | 45      | 47%    | 57이후         | 32   | 13      | 41%    |
| Sub-total(1) |      | 889 명   |        | Sub-total(2) |      | 1,633 명 |        | Sub-total(3) |      | 584 명   |        |
| 미상           |      | 9 명     |        | 목표인원         |      | 4,000 명 |        | 구독료납부인원      |      | 3,115 명 |        |
| 총발송부수        |      | 6,452 명 |        |              |      |         |        |              |      |         |        |

동창회보 구독료는 용마의 자긍심입니다!!



## 2020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총 3,115명> (2020. 12. 31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74-0332-05

예금주 : 경남중고 총동창회 김대옥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3회(6명)**  
노관택 송두호 신현익 윤태윤 이안규 하덕모

**4회(7명)**  
김경식 김희수 박홍기 양종학 장수호 정순모  
정치근

**5회(11명)**  
김인택 김재관 김진휴 박장후 상기중 오배식  
이문기 임성업 정인조 진도영 홍관식

**6회(20명)**  
김상엽 김중철 김태환 박기복 박웅진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오영은 유상환 이강운 이선환  
이희문 임경택 정건용 정경규 정덕환 정승화  
최갑영 최석원

**7회(22명)**  
강병희 김갑성 김명관 김삼현 김용우 김중순  
김진홍 김태배 김호용 노상석 노해규 박영섭  
박환배 배종현 송외득 오장은 윤용우 이동우  
임성규 임의택 조덕찬 하근수

**8회(27명)**  
김동훈 김봉길 김상식 김영길 김영철 김영환  
김재범 문창학 박재범 박희옥 안종열 엄덕양  
이상목 이종택 이준혁 이창규 이춘기 이현문  
이호수 이희순 장혁표 전영배 정금출 조봉석  
최재혁 홍광수 홍기성

**9회(24명)**  
김경희 김기관 김기학 김영국 김 청 김태영  
박남수 박영복 박화철 서해량 신용익 안규현  
유급열 유병철 윤일명 이영규 장동근 전인규  
정 록 정해돈 조이호 지삼봉 최성욱 한동대

**10회(43명)**  
강희운 김기호 김동민 김상규 김상태 김선동  
김성규 김정학 김창덕 김평순 박경수 박재경  
박칠민 배길순 서정철 신규태 심영환 오강욱  
윤재모 이계창 이근태 이상배 이승영 이승준  
이윤수 이재순 이정호 이창복 임정우 장기상  
전영대 정무길 정상수 정종만 정 훈 조길수  
조상진 조종제 진 강 최병도 최해만 최형백  
하영수

**11회(63명)**  
강병희 강용대 공상기 광태엽 권병용 김광석  
김기주 김병기 김삼진 김성규 김수정 김옥실  
김용만 김용정 남원형 김은택 김인섭 김태호  
김학수 김항진 남호현 문정호 박관호 박성우  
박수경 박창순 박태오 박희태 백근덕 서영호  
서자윤 손봉길 심재룡 안강태 양수택 오정광  
유홍중 유흥수 윤태원 이강우 이계찬 이균우  
이상태 이상훈 이성길 이세영 이재진 이종백  
이태순 장세원 장영권 정석철 정운표 제정오  
조양현 지창호 천금준 천동조 최동영 최득호  
최성욱 최창욱 하중선

**12회(79명)**  
강분순 강수현 강창수 구진웅 구창희 권시길  
김기수 김기인 김동열 김명희 김봉근 김봉하  
김부생 김부환 김상렬 김석근 김선일 김영보  
김영수 김우성 김장욱 김중련 김중일 김지희  
김진갑 김현주 김홍래 김훈호 문문화 박문기  
박상도A 박영운 박용운 박정윤 박종정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종섭 백용권 변도만 서병기  
손재진 심용치 안상직 안영배 안용득 염태섭  
오세정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수영 이승태  
이영한 이용언 이윤희 이원우 이재원 이현달  
이환철 이희동 임상원 임창완 장동석 장일곤  
정대식 정수복 정호중 조정제 조한기 조홍래  
차민도 최경관 최병훈 최신일 추영재 허은도  
홍두표

**13회(92명)**  
고송구 고시준 구덕건 구문평 권영계 권영채  
권영환 김동호 김만철 김무조 김민철 김상치  
김신부 김영길 김영호 김일수 김장웅 김정균  
김정일 김경태 김종의 김치득 김한규 김홍석  
남영기 문 창 박길만 박민보 박안남 박영주  
박일웅 박정웅 박종탁 박홍표 배대결 배정운  
서시주 서영웅 성경호 송문일 송신의 신동배  
신 명 신민철 신하근 안성문 안준수 윤기갑  
윤조웅 윤태호 이경재 이근모 이명진 이범경  
이병한 이상문 이웅재 이종달 이종영 이준범  
이창성 이창열 이창호 이철세 이태량 이학수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장웅웅 정덕치 정로상  
정문화 정영화 정은섭 정종현 제병민 조병성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상호 최성욱 최영완  
최태환 추지석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허 훈  
황일인 황정대

**14회(69명)**  
강주신 권 명 김덕행 김덕호 김도선 김동화  
김무남 김무웅 김용호 김익명 김재도 김창기  
김 충 김태희 김형수 김화옥 노수덕 류충일  
문운용 박남조 박만인 박병선 박순일 박중철  
박철수 박정충 박호건 배종현 백태우 손영목  
송성달 신기석 신용진 신준호 신현조 유영호  
윤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언 이광우 이길미  
이명재 이수남 이재돈 이재인 이현영 이환균  
이호근 이훈일 장삼식 전병순 정용마 조광명  
조규향 조기정 조경현 진성태 최낙섭 최병태  
최봉현 최성웅 최충락 하문수 한규환 한수길  
허 증 황원재 황준성

**15회(77명)**  
강무상 강무송 강민조 강부부 강창일 고석기  
권승부 김경일 김소현 김승평 김쌍열 김영훈  
김옥규 김완식 김경길 김종태 김중환 김준근  
김중광 김홍식 김판열 김학현 남기주 남암순  
문옥륜 박영길 박영무 박찬호 박호가 배 박  
배성훈 배 훈 백승진 서병길 서영진 손부홍  
신용기 신현영 안경숙 오봉석 윤상준 윤우경  
윤취정 이상호 이수준 이승남 이의일 이정부  
이종영 이종수 이종희 이태창 임영길 장봉고  
장종호 정석우 정행남 조규경 조영일 천신일  
최광웅 최무길 최병우 최 욱 최원수 최진모  
최태치 하영수 하정부 한진출 한해수 허경도  
허광길 허중덕 홍익찬 황건세 황중부

**16회(87명)**  
강동관 강상권 강영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권복술 김광수 김광웅 김두웅 김박일  
김상용 김상호 김성구 김양원 김영우 김용진  
김일규 김경우 김경호 김 조 김중덕 김창희  
김충길 김형석 김휘부 노원소 문성한 민신웅  
박기용 박두영 박영수 박용일 박종봉 박 훈  
방수근 배정희 변일수 서태복 설희순 성기식  
성진호 손송방 손용석 송규경 송자문 안국정  
안인환 양희부 엄종원 여성국 영광해 오형철  
옥무웅 유영명 윤호주 이경환 이길홍 이명수  
이무근 이무영 이방소 이상대 이상남 이상근  
이영재 이재룡 이종철 이철수 이청원 임승언  
장사충 정우광 정원철 정일성 정태성 조길우  
조원제 주기민 지수신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하희진 한일랑 황규호

**17회(66명)**  
김정은 강정일 권경술 김길우 김길호 김동수  
김동조 김부근 김상천 김성락 김용구 김용남  
김용경 김준연 김준위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김충겸 남궁성은 박가식 박신도 박영일 박인사  
박재구 박 찬 박홍식 서정승 손성근 송유근  
송인문 송인창 신 중 신희규 심문섭 안국정  
양성일 어윤대 오충환 윤성욱 윤수성 이건웅  
이세복 이수원 이수창 이형우 임우택 임정수  
장길성 장웅석 장호남 전경명 전대홍 전영부  
정광우 정두호 정량부 정병렬 정용화 조종언  
차성철 천용광 최성호 추봉실 하영수 허진형

**18회(91명)**  
갈영수 강대원 강덕웅 강성태 강영호 강인섭  
강정일 고병현 김경걸 김경권 김경화 김광웅  
김귀언 김기섭 김길계 김길출 김만근 김만수  
김사권 김 석 김성건 김재창 김정래 김중금  
김중철 김지호 김홍대 류종우 문재빈 문화익  
박건태 박기주 박대웅 박덕봉 박동오 박민학  
박상욱 박석도 박선동 박영복 박 용 박용주  
박용혁 박중구 박종문 박준성 박현태 박호영  
서무원 서재봉 서중규 설현기 손무열 손찬규  
안창범 양동근 오수명 유원호 유영석 윤봉수  
이공희 이영범 이영호 이일수 이재일 이충남  
이형석 임채영 장기영 전기준 전병희 전영석  
정구홍 정우용 정재호 정태섭 조성재 좌경용  
차명식 최 인 최재범 최진수 최희영 하영일  
한기대 한기철 허만조 허성태 허영태 홍우재  
황광건

**19회(105명)**  
강동완 강영범 강재욱 강준권 김경우 김경재  
김규하 김덕규 김덕수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윤 김성진 김순호 김양규 김영우 김영탁  
김영태 김용영 김윤기 김인선 김일천 김재근  
김정우 김창호 김중우 김진근 김진호 김찬균  
김철호 김행복 남진현 노대현 노태규 박갑진  
박동화 박상식 박상택 박성철 배무삼 배영규  
서승성 석무관 선우일남 성낙출 성환진 손기태  
손말현 손철수 신동인 신윤철 심영섭 심재규  
안정모 오일환 오태수 유문환 윤수상 윤영규  
이근식 이명환 이병구 이복춘 이상만 이상우  
이성달 이양환 이용조 이용흙 이창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운 이창흙 이춘만 임영수  
임우근 임채원 임태석 장성규 장홍의 전영석  
정규범 정수남 정승수 정용식 정원찬 정윤영  
정태유 정태남 조성환 조재윤 진수상 최병수  
최상대 최화익 한명섭 함진복 허남걸 허홍욱  
홍승표 황태경 황태원

**20회(69명)**  
강기철 강부덕 강석근 강현진 김대업 김두영  
김성룡 김성환 김세준 김순신 김영철 김우홍  
김원갑 김일석 김경환 김조동 김중민 김찬만  
김철영 김한일 김형오 김희식 남경열 남기석  
목일진 문성채 문시영 민영기 박용덕 박 준  
박지오 박형준 배준태 백완균 백창열 손춘수  
신원기 심두수 안재상 양태운 오경석 오기현  
유근준 윤병규 윤우성 이수호 이실근 이영오  
이중열 이천규 임세호 장상배 장춘식 전일준  
정규식 정동석 정세현 정승창 조영철 조윤택  
차용환 최명호 최상인 최석립 최장하 최중경  
허남균 허주환 홍순태

**21회(106명)**  
강민우 강삼태 강수경 강순석 강영도 강욱형  
강원태 강창수 강태순 공기화 구본능 구현수  
김기현 김남규 김대웅 김동우 김병수 김부근  
김상덕 김순일 김영삼 김원일 김용화 김유건  
김익수 김조영 김현태 김형동 김홍근 김황세  
마상준 박명문 박명옥 박상기 박성렬 박인협  
박일송 박자민 박재선 박주용 박지환 박형성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덕수 서병문 성경근  
송원경 신태윤 심광섭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여한부 오거돈 오익희 오태규 우성건  
우종득 육화원 윤대희 윤승근 이명환 이문수  
이상기 이성집 이익규 이재택 이재호 이준성  
이 혁 임경범 임성출 장정표 전기환 전우성  
정상인 정연호 정영천 정태영 조상호 조성근  
조학래 조현국 조호제 조희부 진영진 차동민  
최동완 최민석 최수명 최원준 최은영 최점수  
최정림 최종린 탁원령 하영준 한대운 허영도  
허창수 황영실 황윤성 황활용

**22회(97명)**  
강상대 강호일 고인준 광대홍 구자룡 김광국  
김대옥 김도살 김동욱 김동원 김명수 김성재  
김성태 김세곤 김수열A 김승규 김우홍 김원주

김일봉 김일준 김정근 김정민 김중달 김진철  
김철현 김학균 김해현 김형경 남백우 노평호  
류명운 박규모 박승목 박언표 박재구 박재상  
박창섭 박학천 박호병 박홍조 배병한 배춘식  
백봉주 변대석 변종호 부창진 서경덕 서항용  
손연도 손용섭 송승훈 심재복 안영수 안진환  
오세길 유인조 유재익 이상주 이상협 이상모  
이경상 이민성 이병수 이상주 이상협 이상모  
이웅규 이윤제 이춘식 이홍기 장무성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정남식 정대섭 정진식  
정해진 조장현 조홍기 최광욱 최성열 최영택  
최완식 최학봉 하성일 하형성 한경규 한근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승조 허인석 홍순욱  
황영환

**23회(94명)**  
김인홍 강구현 강창보 고용석 광상인 구영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동욱 김상영 김상태  
김석현 김성호 김영기 김영철 김익근 김정록  
김중훈 김주찬 김중광 김태용 김태홍 도명세  
문명욱 문창호 박기홍 박동현 박수갑 박영호  
박인권 박재호 배준순 배준석 백승찬 백창영  
서승환 서한현 손근식 송영춘 송재섭 송충송  
신경태 신동규 신언근 신해철 안영수 안범두  
안병을 오도준 유석선 유원형 유진무 신길원  
윤만수 윤병조 윤태규 이강우 이기호 이대우  
이덕남 이동성 이병찬 이부식 이상렬 이상수  
이수백 이승규 이승현 이승호 이영재 이영흔  
이윤석 이일원 이정욱 이준석 이충호 장기원  
장백기 전병식 전상대 전영조 전재홍 권규출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정용성 채행운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한명경 허병상

**24회(116명)**  
강동우 강성철 강용중 강철홍 광두희 구분열  
구자웅 권상철 권수찬 권해영 김경남 김경호  
김도인 김도현 김동운 김만복 김명배 김무성  
김봉용 김성득 김성탁 김영만 김영민 김영철  
김유신 김운수 김은호 김인규 김인철 김정신  
김학성 김한근 김현태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문섭제 문취영 박극제 박명렬 박윤성 박천호  
박홍규 배상호 배종갑 변용준 서정대 서정득  
성송기 손성호 손세영 손인수 손찬호 신병식  
신장우 안상수 안형수 여철우 오덕호 원동희  
윤석만 윤재인 이대영 이동진 이명복 이상룡  
이상우 이상찬 이상학 이 수 이영태 이재능  
이재성 이창무 임덕철 임민호 임성근 장민재  
장세호 장원서 장현동 전대현 전용우 정광윤  
정동화 정명근 정무열 정수민 정수철 정영석  
정용호 정윤상 조영태 조용화 조재진 조태홍  
조현창 조승환 조경근 진병건 차동열 차한영  
최동우 최승국 최연호 최원주 최진우 최현규  
태창업 하 욱 하재갑 한상렬 한태운 허구연  
황성동 황성훈

**25회(198명)**  
강석철 강수명 고명식 광동원 구도근 구자훈  
권태용 김건우 김광돈 김구화 김길수 김남일  
김대현 김덕우 김동진 김문국 김승철 김수석 김연석  
김상수 김상필 김수국 김수룡 김수석 김연석  
김연신 김영필 김영수 김영익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용수 김우형 김유환  
김윤수 김익수 김장형 김정학 김중국 김중만  
김중운 김중택 김중현 김진우 김진철 김창욱  
김창호 김창수 김태선 김형근 노태호 도재문  
문재인 문창진 박거환 박건수 박경립 박광용  
박동건 박명우 박문갑 박병철 박세철 박영하  
박원규 박용영 박인동 박종기 박준환 박진국  
박진상 박창근 박창훈 박희기 배기동 배대관  
배동명 백영건 서민상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서정욱 석창재 성경록 손국영 손기천  
손 원 송기현 송동준 송세경 송영근 송영기  
송정규 신경학 신성기 신성찬 안대상 안수영  
안영복 안희석 양계현 양승욱 양시욱 엄수훈  
여성조 예종복 오양득 옥동훈 이상조 우진태  
유용기 윤병환 윤순기 윤영순 윤종렬 윤태석



윤희승 이계성 이근만 이기상 이길현 이대우  
이동석 이동익 이명철 이민희 이상봉 이상식  
이상화 이성용 이승욱 이신희 이신화 이우석  
이인규 이종호 이찬형 이창훈 이태근 이태식  
이학준 이한식 이홍성 임상택 임영대 임창운  
장대락 장선근 장세훈 전상태 전섭태 전영주  
전영훈 정길영 정동운 정수성 정신배 정윤철  
정재봉 정철수 제영성 조경일 조대우 조병욱  
조 익 조판제 좌상봉 주재걸 지경환 차인환  
최경호 최광수 최병주 최신철 최재환 최정웅  
최차호 최자환 최태동 최현림 탁낙길 태명산  
하만진 하성룡 한석정 한준석 한현교 허만탁  
허영형 허 택 황근태 황 철 황호선 황호연

26회(109명)

강수남 강영녕 강영원 강의규 고석훈 구영호  
권해국 김경철 김광식 김기표 김두천 김민철  
김상현 김섭권 김영섭 김영울 김원정 김일광  
김재용 김경무 김정원 김중우 김주병 김채영  
김태년 김태웅 김택영 김 형 김호용 남인희  
민창현 박경수 박경재 박근석 박권병 박동조  
박두식 박상호 박오욱 박원상 박원세 박의영  
박강현 박재우 박재욱 박효대 백문현 서치호  
서현수 성백운 성재업 성재일 손영수 손욱호  
신기용 신동춘 신덕수 심승택 왕정일 왕효석  
윤경일 윤수현 윤승용 이경호 이광태 이규용  
이명진 이상돈 이상원 이성근 이순철 이양춘  
이영학 이상상 이재봉 이정근 이종욱 이주형  
이창식 이희곤 임철교 장경재 장만옥 장인철  
정국근 정영륜 정익호 정재영 정태현 정현준  
조만석 조민규 지용섭 차인식 최낙준 최명해  
최성락 최상수 최수일 최의수 하성봉 하원규  
하주근 한창학 허진호 홍순하 홍청근 홍형택  
황광수

27회(83명)

강태영 고창우 곽태홍 김강호 김경진 김광철  
김근우 김동조 김명기 김민수 김병욱 김병철  
김병호 김상문 김수인 김안석 김영삼 김우진  
김원보 김원용 김중도 김중욱 김중하 김지언  
김진명 김태우 김학희 김호균 김항열 류재걸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영빈 박종국 박찬석  
박춘규 박치호 반정열 배병록 배호택 백민호  
변재국 서기룡 서명식 신용도 신한원 양태중  
오봉인 유영상 유영호 윤석건 윤정환 윤종락  
윤지한 이민부 이성득 이양현 이요섭 이원호  
이인규 이재득 이중경 이중찬 이현식 이 현  
장인규 장창조 전 풍 정남근 정두식 정재호  
조복관 조용수 조우영 천우대 최석진 최인성  
최휴진 태기섭 하창우 한상훈 한수길

28회(91명)

강현안 구영소 권기택 권수원 김관세 김대생  
김만중 김명철 김부윤 김상윤 김선경 김용석  
김용원 김용희 김익성 김인준 김정유 김준연  
김창곤 김홍국 노상천 노성배 노영현 리신희  
문성룡 민교식 박병준 박병국 박윤철  
박임철 박재훈 박종기 박진화 배호진 백무현  
백영호 서기희 서정환 신중현 안재홍 안 풍  
양동욱 엄보용 엄재홍 엄호성 오현석 오효석  
옥상근 유봉수 유승일 윤경섭 윤명일 이관선  
이만수 이민우 이양훈 이윤남 이원철 이정권  
이종대 이종만 이종환 이철행 이홍오 임상규  
임익성 임재덕 전광병 전남실 전선국 전진학  
전두현 정백수 정영주 정인식 정치영 정재영  
조석태 주창석 최강호 최광해 최현섭 최연욱  
하재근 한기용 한명재 한봉석 허남식 허영철  
황장두

29회(117명)

강대용 강성훈 곽태섭 권오영 금시환 김갑태  
김기수A 김기수B 김기영 김기원 김대영 김대욱  
김문수 김병희 김부겸 김부근 김상규 김석윤  
김성률 김 영 김영훈 김용태 김용환 김우현  
김인술 김재현 김경규 김경암 김중권 김중명  
김종진 김철오 김태명 김태완 김호성 김홍국  
문명환 박국인 박근우 박기찬 박동일 박동혁  
박동흙 박명섭 박병률 박병태 박상길 박성근  
박성철 박인규 박인평 박창언 박희규 배현호  
백성욱 변중만 사공운곤 서석철 서영학 설동일  
손영보 손태권 손홍근 송경문 송희태 신현수  
안창홍 양승룡 양승오 오세용 윤석희 윤 욱  
이남중 이문열 이범익 이병근 이상용 이상진  
이석조 이승호 이승훈 이정준 이준환 이진욱  
이충원 이현률 임광열 임무택 임상훈 장강태  
장 만 장현경 전영상 전장화 전현수 정 길  
정대현 정 란 정성훈 정희용 조승제 조진수  
조창열 조한욱 차의수 최기훈 최문성 최영식  
최정만 하현태 한만수 한승경 허광욱 현계성  
현영열 황맹곤 황유명

30회(115명)

강석철 구을석 권용택 김경수 김계형 김규성  
김기섭 김기수 김기업 김백수 김병기 김상직  
김성복 김순구 김승대 김영일 김영호 김영훈  
김옥성 김유기 김재일 김재철 김경태 김종진  
김진영 김철광 김치영 김해곤 김현태 남영효  
노동춘 도문성 문장호 박규완 박모철 박병규  
박성태 박원호 박재백 박정국 박정태 박종배  
박진명 박철우 박춘욱 박희관 배기경 변윤수  
서강태 서덕영 서민석 서하수 석희원 신교선  
신구균 신윤원 신인기 심풍수 양문섭 오경태  
옥유천 유재일 윤성덕 윤인태 윤준순 이현수  
이기환 이명건 이병구 이상필 이성기 이상조  
이수성 이용우 이원욱 이중욱 이진길 이철호  
이태봉 이한수 이호걸 이호준 이환기 인준승  
장봉규 장석일 장호영 장훈상 전대열 전준호  
정경목 정기룡 정병호 정성원 정순길 정승진  
정영호 정재화 정태환 정해도 정해석 조경재  
조병훈 조재성 채영재 최병철 최영규 최우철  
최 욱 최진근 최진권 하규양 하재명 허영재  
황철민

31회(89명)

고영호 공종렬 권해철 김광수 김기정 김병기  
김시현 김영철 김영학 김정덕 김종규 김종호  
A 김태근 김현주 김형수 김호성 김호연 남  
기태 남철우 노성현 류명석 마병진 문성일  
민중현 박경수 박석두 박세환 박인정 박종호  
박춘열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배정우 서규영  
서동균 서수고 서정호 서태고 손영태 손은정  
손진기 신상하 신수일 신용필 심승식 안기수  
안중수 오민일 오용환 오호철 옥치호 윤석중  
이광태 이민재 이병태 이승원 임종태 장건호  
장재훈 장정철 전병구 정무석 정용식 정용정  
정원규 정철수 조성근 조영기 조현우 차인용  
전장호 최부영 최상규 최상용 최인목 최재호  
최주홍 최진섭 최해영 최효식 하명수 하병관  
하학렬 한문성 한영오 허일현 홍 구 홍성수

32회(44명)

강기상 기영수 김광기 김상범 김영길 김종판  
김창범 민길식 박상학 박성철 박운대 박종구  
박진원 배종찬 변문성 송기수 신국선 신명환  
신한국 양문성 엄호선 오경영 오정국 우득현  
윤병조 이문영 이병훈 이상용 이성훈 이재수  
이종휘 임인섭 임채곤 장기호 정용수 정용운  
정의주 최승찬 최중호 최춘호 최호영 허수철  
허 정 황성범

33회(62명)

고창성 공진환 김기산 김대현 김령환 김범영  
김원일 김윤성 김재도 김재선 김종만 김종욱  
김중인 김중현 김 철 김태훈 김 혁 남경태  
노경호 류장근 민병현 박근보 박명진 박상국  
박성병 박창완 박태중 배성수 백수현 서광기  
서재영 송봉관 송성림 송중훈 안도문 안영훈  
안찬모 예영찬 오환성 이도근 이석희 이윤조  
이은우 이진우 이창훈 이형규 이형근 이호인  
장정석 정아준 정영호 조덕환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영두 최웅남 최홍원 최환호 홍주성  
황경원 황규태

34회(36명)

강승기 박수봉 김두섭 김범석 김상갑 김종근  
김태하 김화복 김희영 노인선 박기훈 박진영  
박철우 박철호 오송대 옥재명 유승민 이강희  
이상운 이상엽 이윤희 이재완 이정철 이준권  
이진호 장현기 정노혁 정하태 조문국 조 선  
조시형 진양호 최대한 최웅철 홍승철 황병주

35회(55명)

김관우 김기철 김길호 김동인 김동일 김선택  
김세정 김영철 김우경 김우신 김홍곤 나동욱  
도창호 류철인 마계성 박동렬 박창석 박창제  
백현석 백현호 서상욱 서석권 성규원 손기철  
손수범 손재수 손태섭 송호성 송화철 안중엽  
안중일 안창돈 오문세 오시영 윤종호 이기석  
이남기 이복근 이성한 이원우 이중찬 이창형  
이춘기 이현수 이효성 임성배 임주택 임 청  
장인화 정윤성 정효영 주귀홍 최기평 최민석  
황용순

36회(66명)

공진식 광상호 권일복 김관용 김규선 김길호  
김덕주 김병국 김병주 김영훈 김용진A 김용진B  
김재호 김경현 김종백 김종오 김종일 김창일  
김철원 김한교 남우진 류형우 박승근 박영준  
박영찬 박진용 박철중 박형출 방진영 백태민  
서광원 성귀호 신승렬 신용덕 안재익 양석용  
양호진 윤경준 이도희 이상권 이상준 이성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범 이정영 이 창 이학수  
이한호 임서룡 임창섭 임창의 정갑영 정병기  
정병철 정윤희 정창규 정홍원 제갈재환 지동섭  
차대일 최덕희 최상도 최승호 최태섭 한형식

37회(41명)

강태우 김기덕 김기동 김동명 김상현 김성현  
김영곤 김영태 김원범 김의렬 김중휘 김준오  
김진영 김형권 김형기 노태건 문진형 문희영  
박용진 서동욱 석영태 소수현 송경철 유호섭  
윤태현 이호진 장원익 전인수 정익수 정재호  
조상현 조성각 조현철 차기완 천웅찬 최재형  
탁낙준 하태민 허부남 홍병일 황태운

38회(45명)

강금성 강대식 강병균 광동열 권두성 김경곤  
김경태 김근홍 김대훈 김문철 김상수 김원철  
김태호 김판준 김현민 류인식 문익현 박이현  
박정민 박준표 박태봉 방기대 백승운 신동훈  
심재영 심 춘 안길수 오승언 오희진 윤경만  
이수관 이양배 이창호 이태훈 정영석 정인철  
정재형 정준기 조석태 조수용 조용철 주영록  
차성철 최휴경 한민덕

39회(63명)

고봉정 광기영 김대중 김병기 김영부 김용태  
김윤홍 김정남 김중엽 김진형 김진술 김태우  
김형보 김호석 노성수 문기호 박근태 박상환  
박인석 박종국 박준근 박진열 박해동 백기현  
송영호 심왕섭 안승진 안영준 여동섭 오선호  
원우광 유수철 유인기 윤동배 윤상순 윤원욱  
이가용 이상학 이상태 이승기 이승민 이영수  
이원영 이종운 이창민 이태윤 장영욱 장윤희  
정순환 정연설 정영철 정용국 정우영 정의창  
정진해 지홍준 천용준 최보식 하성포 하순호  
허중기 황영진

40회(43명)

강창지 고승성 권귀동 김근영 김동근 김병주  
김중철 김창민 김준강 김학수 문태영 문형욱  
박근성 박무성 박훈재 배병훈 배진수 서재원  
서정민 손균효 심 철 안경진 염정철 옥진형  
우영환 이강욱 이 기 이기욱 이병완 이상백  
이영철 이정삼 이태욱 임태영 장갑구 장명재  
장정욱 최용석 최치언 한수열 홍순호 황성수  
황일도

41회(47명)

강병오 강석희 강 훈 김범성 김봉준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 김정태 김종균 김형률 류지섭  
박상환 박정기 박정의 박정호 박철홍 백선민  
백창봉 서백중 성중훈 성찬기 안광근 여근섭  
원태용 유수호 윤성보 윤종진 이경호 이광희  
이명재 이양걸 이형석 임병호 장윤호 전삼록  
정필상 조재봉 천성원 최영준 하범중 한정호  
한창희 허중윤 허치희 홍석우 황정후

42회(21명)

강인호 권영태 김광철 김동수 김순곤 김재용  
김태구 남화정 문지성 박동식 백영환 서분규  
신동복 신봉준 윤영덕 이영도 이정택 정용중  
정훈준 제경환 조명준

43회(33명)

강병규 강택용 구명진 김대영 김동현 김성수  
김신현 김영휘 김종식 김태형 김희경 문기덕  
문영찬 박경곤 박영학 박형규 방성수 백정운  
윤상원 윤성진 이상현 이성춘 이상상 이정열  
이진배 이호영 정영민 정효범 최용석 최한림  
하영수 허재원 황준하

44회(35명)

고봉진 김동욱 김성준 김성훈 김찬홍 김해근  
김 황 문형준 배봉건 안병규 안성환 우도균  
윤상훈 윤승환 이동렬 이병희 이부교 이승철  
이창용 임정환 임지훈 장원준 전광렬 제정완  
조영호 조진현 조청현 진성재 최현덕 최현욱  
탁정환 한수성 홍광호 황인주 황재훈

45회(43명)

강동호 구자삼 구태욱 권우일 김경수 김동규  
김동욱 김병환 김상수 김성준 김중현 김진수  
김찬수 김찬호 김창균 김현철 김현호 나성태  
박중호 박진수 박진영 박진환 박훈식 손창오  
신상효 양현욱 오문찬 오승현 윤한균 이광석  
이규진 이정일 정상희 정중훈 조창래 조태성  
차명환 최상배 최재근 최재영 최지우 하인수  
황귀웅

46회(36명)

강남구 강성백 구경민 권성기 권진근 김규태  
김대기 김동욱 김동희 김백권 김부규 김승완  
김태영 김태준 김희택 문용성 문정기 백경택  
서승진 서용택 신정일 안명기 양수성 오영훈  
윤경한 윤성근 이도수 이성민 이재광 이태환  
장윤성 최원석 하성용 한영길 홍이준 황상철

47회(29명)

감기환 강백중 고달우 김동휘 김성원 김응태  
김재성 박성제 배준수 서정민 성상용 손호준  
송창은 옥재봉 윤필호 이기문 이승택 이 일  
장순재 정기주 정민호 정 신 정윤희 정준홍  
정하윤 조덕만 차기혁 최경훈 최원창

48회(9명)

권태현 김종철 김주현 김춘호 김충진 김태균  
이동재 이재희 차원일

49회(10명)

고용배 김종배 김진용 배승한 이충현 장민건  
장형철 정우근 최유탄 최진영

50회(46명)

강봉규 강 철 구경모 구민수 구원모 권기태  
김동현 김문수 김상준 김석훈 김영환 김유진  
김재용 김재윤 김재호 김정현 김경희 남경현  
박기태 박복열 박종현 백광선 서석진 신성진  
안기범 안동운 오유준 유우진 윤종선 윤준호  
이상구 이상준 이승현 이종환 이주현 장태효  
전대계 정재우 차승준 채현철 최용호 최경민  
최종빈 하진일 한진우

51회(16명)

감중현 강승호 구대서 구민석 김기호 김동주  
김영권 박보순 반길호 신승환 신현식 오성진  
이건영 정유석 정진우 최우영

52회(42명)

강민호 강영철 강재식 공영수 구순모 김도훈  
김명중 김민수 김민철 김상곤 김성화 김용권  
김지운 김현진 김형준 류상원 박상현 박선종  
박정규 변의현 변정환 성운용 심종배 양현승  
유종갑 이경원 이도경 이승복 이해곤 이호영  
정길수 정상중 정안근 정현철 조영찬 조용수  
최종연 최형주 한중현 허균형 허근영 허홍만

53회(22명)

강덕천 광상훈 김경찬 김광호 김권우 김민걸  
김상욱 문희규 박성영 박우진 박정진 백홍상  
송승윤 우재준 이원준 이진수 전세일 최동환  
하병오 한동인 황선경 황종민

54회(69명)

강민승 강인구 강치범 고강인 고지현 고 훈  
권태호 김규완 김대준 김대진 김병조 김상훈  
김성택 김영빈 김주량 김진욱 김치현 김태규  
김태완 남승태 남준현 류중혁 문영섭 민병철  
박경훈 박기홍 박민철 박성배 박신우 박준영  
박중원 서영호 서정호 석강훈 선대규 손대준  
손희원 송지홍 심재훈 안철민 양현진 양형욱  
엄도용 엄태환 이도준 이동하 이성훈 이양래  
이재진 이재필 이재하 이정수 이준일 이찬희  
이치훈 이형민 이홍진 임길환 임성호 임창섭  
장성민 장진영 전명진 정준섭 정재화 제재철  
조경우 조종완 한병제

55회(5명) 김태련 이옥한 이항림 최성원 최범준

56회(2명) 손정현 임재청

58회(1명) 김현윤

60회(1명) 이명휘

65회(1명) 이정조

66회(3명) 김덕형 김시준 성범석

67회(2명) 전명재 황유광

69회(1명) 정민기

77회(1명) 김건우

78회(1명) 홍경민

79회(2명) 김민규 박준혁

기수 & 이름 확인불명 9명





정부가 공인한 “한국형 그린뉴딜100” 20개 기업에 선정

미세먼지와 코로나를 동시에 제거하는 그린뉴딜 테크놀로지 기업 애니텍

www.anytech.co.kr



# 공기를 입다 인간과 자연을 함께 감싸는 공기

## 공기로 보호하다 푸르고 깨끗한 자연의 공기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나를 보호하는 시간 **2초**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숫자 **99%**



대 표 이 사 : 이주열  
영남지역 본부장 : 손수범 (35회)

### Business

#### 스마트 게이트 / 스마트 쉼터



#### 공기청정기 + UVC LED 바이러스 살균기



#### 선박용 SOx (황산화물) 스크러버 사업

